



안철수 디지털 시집

오래 기억되는 이름을 위하여

내일도 모레도 그리움의 꽃이
 소리 없이 피었다 진다해도
 살아 있는 동안
 이름만으로 서로를 기억할 수 있다면
 꿈속에선들 포갤 수 있는
 반가운 소식 하나 들고 오지 않으랴

- '오래 기억되는 이름을 위하여' 중에서





안 철 수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순천문협 문예대학 수료
- 순천문협 사무국장 역임
- 문학동인 시와산문 회장 역임
- 순천예총예술상 수상(2007년)
- 문학시대 제59호(2002 봄호)
'밀레니엄 신춘 특별 공모전'
'신기루를 보다' 외9편으로 당선되어 문단에 나옴
- 현재, 문학동인 시와산문, 순천문협 회원
순천효천고 교사 / 민족미술인협회 회원
- 블로그 : 다시 일어서는 풍경
<http://blog.daum.net/papasmf>

안철수 디지털 시집

오래게 기억되는 이름을 위하여



■ 책머리에

창 밖 세상은 아직 어둠이다. 우리가 그 어둠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서로의 어깨를 엮어맨다 해도 그 어둠은 좀처럼 자신의 영역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바람과 새 날을 기다리는 벅찬 가슴이 서로 어울려 빛이 되는 날, 잠자는 말의 씨앗들이 깨어나리라. 옆드려있는 언어들을 하나 둘 일으켜 세워 가슴에 새겨 넣을 때 비로소 세상 변두리에서 서있는 마음 곁사람들의 가슴을 온기로 데워 줄 것이다. 우리가 말의 씨앗을 껴안고 두터운 껍질을 벗기려하는 것도 이미 기호화된 통속적인 언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삶의 본질을 캐내려 애쓰는 것도 아직은 어두운 세상 폭풍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따뜻한 불빛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문득 그리워지는 이름을 위하여
마음 하나쯤 비워두면 좋겠다.
망각의 이끼에 덮여
그대 찾아오는 길 지워지지 않도록
젖은 낙엽을 치워야지
묵은 그리움의 장작불 지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가슴 데워 놓아야지
내일도 모래도 그리움의 꽃이
소리 없이 피었다 진다해도
살아 있는 동안
이름만으로 서로를 기억할 수 있다면
꿈속에선들 포갤 수 있는
반가운 소식 하나 들고 오지 않으랴

- '오래 기억되는 이름을 위하여' 중에서

■ 목 차

약력
책머리에
서시

제1부 다시 일어서는 풍경

- 13 목련꽃 편지
- 14 눈부신 아침
- 15 낡은 것은 등 뒤에 있는 것이 아니다
- 16 배롱나무 꽃그늘에서
- 17 푸른 꿈을 꾸는 바다
- 18 더디게 오는 아침
- 19 다시 일어서는 풍경
- 20 관계에 대하여
- 21 상처가 무늬를 만든다
- 22 까미유 끌로델을 위한 연가
- 23 깊고 푸른 그녀의 집
- 24 소리가 이미지를 만든다
- 25 꽃이 진다한들
- 26 새는 소리로만 운다
- 27 차를 마시며
- 28 신기루를 보다
- 29 습관 1
- 30 습관 2
- 31 가을 별
- 32 가을을 보내며
- 33 땅 일구기

제2부 풍경 속을 산책하다

- 35 밤바다 안개
- 36 해질 무렵 섬 풍경
- 37 봄이 오는 연등천
- 38 빈집, 돌아 나오다
- 39 마음을 흔드는 가을
- 40 아침 풍경
- 41 느리게 걷기
- 42 우포늪 기행
- 43 월미도 소견
- 44 테마마을

- 45 대대포구
- 46 봄, 바람 속을 걷다
- 47 섬진강 연정
- 48 풍경 속을 산책하다
- 49 밤, 외출
- 50 강천사의 농익은 가을
- 51 겨울 바다
- 52 바다가 보이는 풍경
- 53 눈을 기다리는 마음
- 54 안부

제3부 꽃이 그리운 날에

- 56 꽃이 그리운 날에
- 57 내가 바라보던 것들이
- 58 마흔, 중턱에 서서
- 59 내 안의 남자에게
- 60 어둠이 된 남자
- 61 흔들리는 날의 일기
- 62 가끔은
- 63 그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 64 마음 벗고 서다
- 65 날아 오르기 위하여
- 66 비에 젖다
- 67 길들여지다
- 68 개운치 않은 날
- 69 겨울나무
- 70 고독한 길
- 71 깨진 거울을 보다
- 72 나만의 공간
- 73 소문
- 74 삶을 외면하다
- 75 혼자 맞는 아침

제4부 오후 세 시의 풍경

- 77 때로는 낯선 길에 선 이정표가 되고 싶다
- 78 지은 죄
- 79 새벽 일기 1
- 80 새벽 일기 2
- 81 새벽 일기 3

- 82 오후 세 시의 풍경
- 83 하산
- 84 外道
- 85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 86 외톨이 반늬은이
- 87 파일을 정리하며
- 88 불면
- 89 不在를 적시다
- 90 비와의 동침
- 91 내 안의 섬
- 92 늦은 밤 거울을 보며
- 93 블로그 친구
- 94 버리려 하는 것들에 대한 변명
- 95 벽 속의 남자에게 말을 걸다
- 96 환생을 꿈꾸다
- 97 겨울 일기

제5부 어머니의 겨울 밤

- 99 지는 꽃을 보다가
- 100 부드러운 곡선
- 101 담배 피는 여자
- 102 깊은 사랑
- 103 어머니
- 104 오래된 사진 한 장
- 105 別離
- 106 기억조차 희미한 날의 아픔
- 107 반원에 뿌리내린 들꽃
- 108 어머니의 겨울 밤
- 109 기다리지 말아요
- 110 임이여 임이여
- 111 아침 식탁에서
- 112 가슴앓이로 부르는 이름
- 113 빗장 풀다
- 114 눈물로 조각한 그리움
- 115 나, 어릴 적에 알았어야 했다
- 116 어머니는 말이 없으시다
- 117 속앓이

제6부 한 쏘이 지다

- 119 나비
- 120 할머니의 작은 섬
- 121 누이 1
- 122 누이 2
- 123 누이 3
- 124 IMF 한가위
- 125 바람나무에게
- 126 조롱 속에 갇힌 새
- 127 복날 이후
- 128 족보에도 없는 내 형제에게
- 129 먼저 간 형에게
- 130 장수 사진을 찍다
- 131 죽음에게
- 132 실려 가는 개
- 133 희망의 시간
- 134 쓰러진 고목을 보며
- 135 한 생이 지다
- 136 여든 다섯 개 촛불을 켜고
- 137 풀숲에 누운 새
- 138 폐차, 경적을 울리다
- 139 죽음의 거리에도 별은 뜨는가
- 140 상황
- 141 아직은 떠날 수 없어요, 어머니

제7부 오래된 편지

- 143 새벽 별빛으로 오는 그대
- 144 함께 걸어온 길
- 145 오래된 편지
- 146 꿈속의 사랑
- 147 내 삶을 지탱하는 그리움
- 148 오래 기억되는 이름을 위하여
- 149 연민
- 150 내 마음도 모르는 그대
- 151 가슴 속에 피는 꽃
- 153 기다리는 마음
- 154 아름다운 불륜
- 155 더 늦기 전에
- 156 천년의 사랑
- 157 기다려 본 사람은 안다
- 160 덤으로 사는 세상

- 162 홀로 부서지는 노래
- 163 안을 수 없는 사랑
- 164 마지막 편지
- 165 그리움
- 166 이별

제8부 오래 벗어둔 신발

- 168 소외
- 169 꽃을 피우지 못한 풀
- 170 죽음의 거리에도 별은 뜨는가
- 171 밤과 낮의 경계에서
- 172 그해 겨울
- 173 오래 벗어둔 신발
- 174 부패된 잠에서의 이탈
- 175 세기말의 알기
- 176귀향
- 177 그날 이후, 벌써 1년
- 178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179 나와 생선의 데칼코마니
- 180 늦은 오후 시장에서
- 181 밤, 외출
- 182 서울 기억
- 183 서울역 지하도 노숙자
- 184 세상을 덮는 개썩갓처럼
- 185 어느 소인증 환자의 노래
- 186 요즘 세상
- 187 탑골 공원에서
- 188 세상의 표적이 된다는 것
- 189 새 천년 새벽별을 노래하다
- 190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 191 운동화 한짝
- 192 장군의 꿈
- 193 구멍가게 할멈
- 194 20090523

제9부 다시 일어서는 풍경

- 196 물방울
- 197 바다
- 198 사진에 대하여

199 녹
200 미모사
201 별
202 거미
203 空
204 분재 1
205 분재 2
206 봄 1
207 봄 2
208 詩
209 죽비소리
210 섬
211 벽
212 고향집
213 아침 달
214 장마
215 장작불
216 꽃에게
217 오후
218 팽창의 힘
220 맺음말

제 1 부

다시 일어서는 풍경

우리가 막연히 바라보던 풍경도
제 나뭇잎의 빛깔과 질서가 있다.
그 풍경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다시 일어서는 풍경을 만나고
다시 일어서는 풍경이 된다.

목련꽃 편지

하얀 목련꽃 속에는
늘 木月の '4월의 노래'가 숨어있지.
로테를 향한 그리움으로 쓴
베르테르의 애절한 편지.
꽃가지를 잡고 흔들면
꼼꼼하게 눌러쓴 애잔한 사연들이
수북이 떨어지는 목련꽃 편지,

올 봄 내 우체통에는
각종 고지서 대신
애뜻한 목련꽃 편지가
한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네.
누군가의 소식들을 하늘하늘
봄바람으로 읽어 내려가는
파릇파릇한 즐거움과 만나고 싶네.

눈부신 아침

어둠에서 빛이 풀려 나온다
공공 묶여있던 빛들이 기지개를 켜고
비로소 밤의 기억들을 지워내고
빛을 칠하는 새벽
창 밖 세상 분주함이 눈부시다.
살아있는 것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따뜻한 체온을 나누는 하루
성경 속 활자처럼 경건하고 거룩하다
닫혀있던 창을 연다
창은 안과 밖의 경계였으리라.
닫혀있던 것들과 안에 들지 못한 것들이
분분하게 인사를 한다.
거짓 웃음, 열은 마음들이 겹겹으로 낀 창을 닦아
일상을 일으켜 세우는 아침 빛줄기,
눈이 부시다.
축축한 어둠 속 만상을
여명으로 시나브로 물들이는 아침,
또 다시 맞이하는
살아있음이 눈물겨운 시간
눈이 부신 아침.

낡은 것은 등 뒤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르고 살았다
낡은 것은 등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다
낡은 것은 어제가 아닌 오늘이다
희망은 늘 지나온 시간 속에
뜨거움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희망의 탈을 쓰고 다가올 내일은
생생한 오늘의 모습을 지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낡은 모습으로
나를 끌고 갈 것이다
희망은 걸어 온 길 위에 있었다
젊은 날의 왕성한 혈기로,
하늘 향해 침을 뱉던 객기로,
가슴 치던 멍울진 시행착오로
늘 그 곳에 서 있었다
무심코 지나쳐 온 수많은 어제의 기록이
내가 찾는 희망이었다
미소 짓던 앨범 속 나는
막 떠오른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었다
지나쳐 버린 어제가 젊음이고 희망이다
시간이 흐른 만큼 나는 부서지고
빠격거리고 낡을 것이다
낡은 내일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다.

배롱나무 꽃그늘에서

눈 부비는 가지마다
실핏줄 터트려 곱게 벵그는 꽃망울,
그리운 이 떠난 자리에
묵묵히 등불 밝히고 서서
석 달 열흘을 앓아도 시원찮을
병어리 냉가슴이더냐
서라벌 영지에 뼈를 묻고
속울음으로 한을 푸는
아사녀의 뉘이더냐
제 그림자 등에 지고
함초롬히 번지는 隱香,
여윈 바람에 꽃잎 지면
흥흥한 가슴은 꽃댕기 풀고
구천에 길을 연다.

푸른 꿈을 꾸는 바다

물로 기어올라
푸른 꿈을 꾸는 바다
관절 꺾인 줄기 다시 일으켜 세워
싱싱한 눈부심으로 풀꽃을 피우고
비로소 바다로 길을 여는 봄,
세상 끝으로 가는 바람 붙들어
가지마다 바다를 퍼 올린 미루나무 숲
어두운 겨울 기억들을 풀어놓는다
이 푸름도 한때는
다 버리지 못해 어둠 속에 묻어둔
삭혀지지 않는
슬픔의 알갱이 엮으리라

더디게 오는 아침

오월의 밤은
아무도 넘나들지 못할 적막한 담을 쌓는다
빈방을 배회하는 탁상시계 발자국 소리만
허공에 무늬를 새기는 오월의 밤,
잠에서 풀려나온 기억의 보푸라기가
버려둔 생각의 타래에 엉켜 아무렇게나 구겨진다
아침으로 가는 시간은 더디고
오래 버려진 시간처럼 황망하다
무거운 정적을 가볍게 하는 것은
옥죄던 생각을 풀고 쉬 잊는다는 것
어제의 어둠에 새벽을 칠하는 것
마음 속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잡념을 비우는 일
의식을 더듬어 새벽 모퉁이의 적막을 바라본다
하나 둘 커지는 어두운 창
그 불빛의 따뜻함으로 새벽은
금세 살아나 어두운 공기를 지워낸다
창문마다 열리는 살아있는 것들의 흔적들
살아있다는 것은 오래 간직한 불안함이고
낯설지 않은 습관의 간격이다
오월의 새벽은
점점 멀어지려는 속마음의 간격을
오래 붙잡아두려는 간절함으로 더디다
밤을 붙잡고 있는 군살을 떼어내야 할
생채기의 거룩한 의식의 시간이다.

다시 일어서는 풍경

가끔은
사람이 풍경으로 보일 때가 있다.
아침나절 골 깊은 고즈넉한 풍경들과
마주앉아 삶을 들춰보는 시간
흐름과 멈춤의 굴곡한 굴곡의 능선이
침침한 눈에 박힌다
학교 앞 공터를 지나가는
한 무리의 아이들의
햇살에 버물려진 왁자한 웃음소리가
사방으로 번진다
어둠을 쓸어내고 싱그러움으로
반갑게 손을 내미는 고즈넉한 풍경,
아이들의 웃음꽃이 핀 풍경을
시름없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눈부시다.

관계에 대하여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어둑한 생각들이
서서히 숨통을 조여 온다
스위치를 눌러 회전을 멈추게 하면
풀어져 흩어진 내 안의 생각들도
잠잠해 질 수 있을까
요 며칠 '관계'를 붙들고 있다
좀처럼 거리를 좁힐 수 없는
관계를 짊어지고
가파른 세상 언덕길을 오르다
능선 어디쯤에 멈춰 서있다
세상 문당은 아득한데
벌써 숨이 차고 뒤통거려 불안하다
내게 이어진 길들을 뒤돌아본다
보풀처럼 떨어져나간 인연들과
주름진 얼굴에 비친 옅은 미소와
환희와 환멸의 시간들이
갈피를 잃은 생각을 헤집고 들어와
가지를 당기고 엮어 등지를 튼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
흔들리는 가지들이 서로 어깨를 걸고
끈끈함으로 관계를 만든다.

상처가 무늬를 만든다

살아오는 동안
마음에 때가 끼어 흐릿해 보이던 것들이
삶의 고갯마루에 올라 바라보니
제법 뚜렷해 보인다.
안으로 파고들어 생을 갇아먹던
두툼한 고집들이 상처였다.
하찮은 것들이 할퀴 상처가
내 삶의 이력이었다.

채우려 애쓰던 날들이
크고 작은 상처의 무늬였다,
비우고 산다는 것이
채우는 것임을 이제야 알겠다
하늘도 찌푸린 제 모습이 궁금해
비를 내려 보내
지상의 웅덩이마다 빗물을 채우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지 않더냐.
삶의 상처가 무늬를 만든다.

까미유 끌로델을 위한 연가戀歌

멍하니 바라보는 눈빛에
마음이 묶여
한동안 부유浮遊하던 생각을 내려놓는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다나이드
삼십여 년의 두려움과 원망이
풀어진 대리석 머릿결을 타고 절망으로 흐른다
세상에 남겨진 슬픈 사랑의 노래는
온전히 너의 몫이던가
로즈의 팔을 잡고 떠나는 너의 사랑을
애써 잡으려 하지 마라

눈멀고 병어리 된 사쿠타라
온전한 사랑을 꿈꾸다 지옥의 문에 걸터앉은
까미유 끌로델
세상이 너를 외면하고 등을 돌려도
눈물을 흘리지 마라
너를 붙잡아 맨 시대의 억압을
부디 용서해라
위험한 사랑과 인생을 맞바꾼
너의 사랑에 붉게 핀
오월의 장미를 보낸다.

깊고 푸른 그녀의 집

그녀의 집에 갔었네
'지란지교' 속 그들처럼 편한 추리닝 차림으로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갔었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난 돌아 나오는 길을 잃어버렸네
진득한 끌림으로 치장된 벽지가 나를 빨아들이는
진한 매력이 숨어 있는 방,
온몸으로 고독을 말하는 사진들과
담배 피는 여인네의 진한 눈빛이
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좁고 긴 복도를 지나면서
나는 여러 차례 발을 멈추었네
사방은 고요에 눌러 멈춰 있고 무채색 방은
내 의식과 바라봄마저도 무채색으로 칠해버려
시간을 멎게 하고 내 숨소리조차 삼켜버렸네
행간마다 숨어있는 속내를 엿보려 손으로 더듬어 보았지
손끝에 만져지는 푸른빛의 끈적거림
그녀의 꿈이 부화를 기다리는 집
출입금지 푯말도 없는데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멈칫....., 기다림으로 서성이다 돌아 나오는
깊고 푸른 그녀의 집.

소리가 이미지를 만든다

반백의 친구들 만나러 가는 길
그리움을 버무려 차창 밖 가을 풍경 위에
사십 여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친구들을 하나 둘 그려 본다
보이지 않는 소리가 이미지를 만든다
내 그림 위에 제멋대로 갈겨 쓴 낙서처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뒷자리 전화 통화소리
내 그림 위에 형클어진 이미지를 만든다
돌아보고 싶은 마음 접어
그리다만 창 밖 풍경 속에 구겨 넣는다
보이지 않는 소리는 캄캄한 어둠이다
어둠은 세상 모든 것들을 삼키고
선명한 소리만 토해놓는다
부끄럼 없이 재잘거리는 소리가
궁금함을 비집고 제멋대로 흐르는 도량물 같다
도량도량 끝도 없이 흘러드는 도량물에
애써 그린 내 풍경이 젖는다.

꽃이 진다한들

꽃이 진다한들
바람을 탓하랴

힘없이 찢기는 꽃잎의 처절한 몸부림
저항도 없이 만신창이로 선
가벼운 떨림이 가여워
나, 눈 감지 못하고
바람에 쓸려가는
꽃 이파리의 행적을 따라가 보네.

꽃잎이 떨어진들
누구를 탓하랴.

새는 소리로만 운다

무성 영화처럼 지루한 오후
창문을 열면 겨울이 지쳐있다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 늘어진 가지도
앙상한 가지 꼭대기에
저항할 힘도 없이 매달린 갈잎도
한껏 짙은 솔잎도
햇살 차가운 겨울에 묻어 졸고 있다.
바람도 없다
창밖을 더듬는 지루함 위로
깃털 푸른 새가 날아와 앉고
고즈넉한 풍경이 조용히 흔들린다
마른 잎이 떨어진다고
깃털 푸른 새가 운다
마른 눈물 흘리지 못하고
제 설움에 겨워 소리로만
열지 못한 가슴을 갈라 운다.
창문을 닫으면
가슴이 운다
무성 영화 속 주인공처럼 표정만으로
깊은 울음을 운다.

차를 마시며

별경계 달아오른 몸뚱이를 풍덩
차가운 물에 집어 던진다
차가워진다는 것이 이처럼 서툰 몸짓으로
금방 차가워질 줄 알았다면
애써 달아오른 몸뚱이를
그렇게 부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뜨겁다는 것과 차갑다는 것은
유리벽을 사이에 둔 냉정한 간격이다.
달아오름도 한계가 있어
제 스스로 달아올라 마침내 냉정하게 식을 때까지
우리는 강 건너 불보고 뒷짐 지고 서있듯
입 안 가득 퍼지는 차 향이나 느껴 보시게
진함으로 우러난 차향의 뜨거운 견뎌움은
옹이진 세월보다 자유로워야 제 맛이리라
옥죄이며 작아지려 뒤척이던 순간들이
뜨겁게 펼쳐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수십 번 뒤척이며 견딘 시간이
이렇게 한 순간 고요함으로 풀어질 줄이야
차가움이 차가움으로 남을 때까지
몇 번의 칼을 만나야 하는가.
뜨거움이 뜨거움으로 남을 때까지
몇 번의 달이 기울어야 하는가.

신기루를 보다

아무래도 잘못 든 길이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 속 적막을 잡으려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었는데
부화되지 못한 말의 씨앗들
몰래 사막에 묻고 돌아오던 그 밤
뒤따라온 모래바람이
두툼하게 껴입은 잠 속을 휘젓고 다녔다.
노을을 등에 짊어진 저녁 강가
물안개 숨 고르는 소리가
내 몸 깊숙이 들어와
물결무늬를 한 땀씩 새겨놓았거나
이끼 낀 우물 속 쓸쓸함을 바다로 데려가
수평선 너머 물비늘로 풀어놓았던 탓일까
내 머리 속에서는 이끼 대신 썰물처럼 파도가 일고
한동안 소음으로 들쭉시던 내 귀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보내는 모스 부호를 읽는다.
잔물결이 돌을새김 하는 모래톱을 묵묵히 건너오는
낙타 눈에 비친 신기루
아, 푸른 새벽 같은 오아시스를 본다.

습관 1

익숙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편견을 장착한 낯은 습관이 이미 계획된 길을 가지 못하고 낮선 길이 포개놓은 어두운 그늘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언제부터 원래라는 무분별하고 모서리도 없는 말이 생겨났을까. 누구나 직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 산이 직립하여 마을에서 기어 나온 길을 끌어다 하늘에 매달아놓은 것이 어찌 우연이라 하겠나. 함구해야 더 단단해 지는 물렁한 비밀, 낯은 어색함을 버리고 날마다 움트는 습관을 빼곡히 진열해 놓은 일상은 일 년 내내 휴업 중이다.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안쪽이 늘 궁금했다. 궁금할수록 단단해 지는 편견, 어쩌면 날마다 습관을 뱉어내는 상처에 대하여 죽는 날까지 더 익숙해지려 하는 것이다.

습관 2

깊어가는 겨울
세상 소식은 멀고
고집에 젖은 습관
그 무게에 눌러
깊은 어둠 속으로 점점
물들어 간다

늘 하던 것처럼
어김없이 걷고 있다
어쩌면,
그 길 위에 깊이 쓰러져
저물 때까지 버리지 못할
견고한 고집

가을 별

반가이 손 흔드는
풀꽃 사이로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
바람 잡으려 내민 손끝에
잠시 내려앉은 가을 별,
별 한 줌으로도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넉넉해지는 마음.

가을을 보내며

가을이 떠나려 한다.
가진 것들 모두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려 한다
나는 읽던 책을 덮고
가을이 지나가는 책갈피 마다
향기 진한 가을을 꽃아둔다
겨울 한 때 풍요로움을 위해
가을을 갈무리하는 내 욕심의 무게에
붉게 물들었던 마음이 다쳐 후끈거린다
가을은 다 벗고 빈 몸으로
세상의 거울 앞에 서있는데
거울에 비친 가을을 보지 못하고
떠났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네.
창문 밖 풍경이 땅 속 깊숙이 묻혀 있다가
아지랑이로 깨어날 무렵,
간혀있던 가을 풍경이 긴 겨울을 이겨내고
비로소 연둣빛 새 움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그 보드라운 속살 아래 감춰진
가을 기억들이 까칠까칠
돈을새김 무늬로 만져질 것이다.

땅 일구기

아파트 베란다에서 다락 발을 일구는 3대를 본다
3대가 함께 일구는 채마밭.

노부와 장년, 그리고 열 살 안팎의 손주.

굳은 땅을 일궈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는 일이 그가 살아온 삶의 전부 인양

노부는 굽은 허리를 몇 번 수직으로 맞추고

담배 몇 모금으로 피곤을 식힌다.

아들 녀석은 가끔, 손주 놈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대견스러운 듯 얼굴 가득 웃음을 달고

견고하고 힘찬 어깨로 발을 일군다.

손주 놈은 서너 번 갱이질을 하다 무료해지면

발두령을 빙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제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담배 한 모금 빨아 후 내뿜는 흥내를 내기도 한다.

머지않아 다락 발에는 싹이 트고

그들이 땀으로 뿌린 씨앗이 희망차게 새싹의 파릇함으로

굳은 땅을 밀어 올릴 것이다.

땅을 일구는 것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

내 유년이 창문 밖 풍경과 버무려져 흐릿해진 창문을

입김을 불어 소리 없이 닦아본다.

제 2 부

풍경 속을 산책하다

생각은 가득한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쓰러져 있던 시기에
마음으로만 바라보던
창밖의 풍경
풍경 속을 걷는다는 것은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밤바다 안개

바다 거머쥔 채
어둠을 배설하는
술쉼 지운 밤안개
갓 난 별 마중 나온 초승달
제 몸 풀어 길을 열어도
푸른 반점으로 각인된 목정발
어둠이 무성히 자란다

개펄이 저 홀로 깊어지는 초저녁
바다로 창을 내고 어둠을 씻는
갯마을 불빛들
낮선 기억 어디쯤
무겁게 잠재된 인상이었나
미완성 물빛 수채화

해질 무렵 섬 풍경

해질 무렵 바다에 서서
분주하던 일상의 무게를 벗어나
잠시 지나온 삶을 되짚어 보라
밀려왔다 포말로 부서져 잣아드는 파도
그 숨소리에 귀 대어보면
바다 건너 작은 섬 이야기를
조곤조곤 풀어 놓는다
햇살을 걷어내고
어둠이 서둘러 장막을 칠 무렵
해무 속 섬 풍경은
느긋하고 적당한 울림으로
고즈넉하게 아름답다
실루엣으로 제 모습 감추고
장막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골 아낙 같은 대횡간도,
귀향하는 작은 통통배 하나
서둘러 기다림을 끌어당긴다

봄이 오는 연등천

오염되고 척박한 연등천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온다.
연등천을 거슬러 오르다 만난
바위틈에 뿌리를 내린 풀꽃들과
여러 차례 잘려나간 밑동에서
다시 가지를 뻗고 새싹을 키우는
얕은뱅이 나무 한그루,
자연의 생명력이란 그 치열함으로 눈이 부시다.
언제 잘려 나갈지 모를 가지들,
그 가지에 매달린
초록 연두 이파리들의 속삭임,
연등천은 혈관을 막히게 하는
오염된 온갖 것들을
다 받아주는 넉넉함으로 봄을 맞고
품 안에 살아있는 것들을 다독거린다.

빈집, 돌아 나오다

기척 없는 마당에
개망초 소리 없이 피어 진 들
어느 누가 알까
바깥세상 기웃거리던 울타리
스스로 키를 낮춰
담쟁이넝쿨 아래 깔려 죽은 들
누가 알거나 할까
뚫린 창호문 사이로 사시사철
여윈 그리움이 들락거린 들
그 누가 알거나 할까

얼마나 외로웠으면
아침 햇살이 흘린 그림자를 잡고 놓지 않을까
마음에 금이 가고 녹이 슬어
기다림 밖 풍경으로 지워지지 않기를
발자국 지우며 돌아 나오는 빈집,
마음이 먼저 돌아서
길게 뻗은 목을 접는다.

마음을 흔드는 가을

가을이 언제부터 내 곁에 와 있었는지 모릅니다.
진즉부터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말을 걸었을 텐데
이유 없이 눈멀고 귀 먹은 듯
아무도 머물지 않는 그 자리에
가을이 되지 못한 나는 빈 그림자로 가만히 서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은 또 다시 빈 길로 이어져
누군가 발자국을 새길 겁니다.
묵묵히 서있는 노란 은행나무가
가을별을 지나는 바람을 잡고 놓아주려하지 않은 탓인지
바람은 아까부터 제 몸을 흔들며 깔깔깔 웃어댑니다.
그 웃음소리가 금빛으로 부서지고 번져
주위가 하염없이 노랗습니다.
가만히 서있던 나도 가을빛으로 물들어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가만히 흔들어 봅니다.

아침 풍경

여린 풀꽃 향 머금은 햇살
달힌 창에 부딪혀 잘게 부서진다
호들갑을 떠는 빛 방울들이
늦장 부리던 밤 빛 그림자를 밀어내고
잠시 접어 둔 시간을 더듬어
오늘을 칠한다.
잠잠하던 방안 공기가
송이송이 꽃으로 피어
잠을 털어내지 못한 내 옆에서
늘어지게 기지개를 펴는 아침,
흐릿한 시력 안으로
먼 산이 구름처럼 떠서
느릿느릿 초점을 맞춰오는 시간,
햇살이 비집고 들어 선 가슴팍에
오롯이 안겨오는
아침 풍경 하나.

느리게 걷기

가던 길 잠시 멈추고
마음을 열어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은 것들이 새삼 아름답다는 것을 안다.
느리게 걷다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린다
초침을 따라 분침이 돌고
분침을 따라 시침이 돌고
하루를 지나 이틀, 사흘을 지나 나흘.
밤이 지나간 길을 따라 아침이 오고
마른 풀 사이 새싹이 돋고
꽃잎은 젖은 입술로 나비를 불러
춤사위 눈부심으로 하루를 연다는 것을
흔히 지나치던 것들에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머물다 가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것들도 순종으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을
현기증 나도록 바빠 돌아가는 세상에서
잠시 내려 가쁜 숨 돌리며 들여다보면
하찮은 것들이
새삼 아름답다는 것을 안다.

우포늪 기행

사십 여년을 돌아
태고의 숨결 들으려 찾아 간 우포늪
반년을 살고도 천년을 산 듯
하얗게 머리가 센 망초와
일억 사천년을 고요함으로 지켜온
물풀들이 자갈길을 경계로
숨결 나누는 그 곳.

토평천이 화왕산을 내려와
동에서 서로 굽이굽이 흐르다
터를 잡고 누워
가시연꽃, 생이가래, 자라풀, 마름, 매자기, 창포와
얼굴 부비며 사랑을 나누는 우포늪,

왜가리 쇠백로 휘파람새가
백악기 공룡의 긴 울음을 숨죽여 따라 우는 곳
포복하는 갯버들 위로 발목 담그고 곤지발로 서있는
왕버드나무 어르신께
가만히 눈인사만 건네고 돌아 나오는 길
저녁놀에 물든 왜가리 울음 질다.

월미도 소견

서러이 날던 갈매기
뱃고동으로 떠난 월미도 오후 선창
갯내음도 없다
지는 해 등지고
늪은 소처럼 누워 신음하는 월미도
바다가 잠든 사이 섬이 떠났는가
호객 하는 아지매 호들갑에
씻어내지 못한 둔탁한 호흡만
탁류로 흐르다 안개빛 섬이 된다
수면 가득 구르는 은구슬마저
까치놀 따라 물밑으로 숨은 뒤
그대는 실루엣으로 가로등을 켜다

테마마을

행정구역으로 표기되지 않은 그 마을에 들어서면 오래 묵은 향기처럼 은은함이 묻어난다. 사시사철 시인들의 명패가 걸려있는 마을, 시인이란면 한번 쯤 명패를 걸고 싶은 그 마을은 2001년에 터를 잡아 사람들의 온기로 훈훈했으나 이듬 해 흉년이 들어 하나 둘 떠나 인적이 끊기고 두 해 동안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질 않았다.

2004년 시 월, 우직한 새 주인이 문패를 다시 달고 폐허가 된 마을에 등불을 내걸었다. 불빛만으로도 아름다운 풍경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인가. 누군가 찾아주지 않아도 막막한 시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예비 시인들에게 길을 내주는 불빛이 되고자 다달이 등을 닦고 갈아 끼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우직함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묵묵히 실천하는 테마마을은 그녀의 사랑방이고 공간이다.

시골 장터 국밥집 이 빠진 사발에 부어 마신 막걸리 텃텃함을 맛볼 수 있는 곳, 끈적끈적 눌러 붙은 갯옛 같은 끈끈하면서도 달콤함을 덤으로 만날 수 있는 곳. 마음 고픈 이여, 그곳에 가보라. 여러 시인들의 속내를 눈요기하며 허기를 달랠 수 있다.

잠시 머물다 간 묵은 글 위 발자국이 심심하다.

대대포구

마음 순한 사람들
두런대는 마을을 지나
동천에 몸 섞고
갈지(之)자 걸음으로
대대포구에 만삭의 몸을 푸는
이사천을 따라가 보라
시름 깊어지는 해질녘,
빨 속 깊숙이 발목 하나쯤 묻고 사는
마음 찢긴 사내들과
바다로 가지 못한 녹슨 희망을 불러
허리 풀고 둘러앉아
막소주에 젖는 대대포구,
흑두루미 처연한 눈빛 지워진 갈대밭에
마음 한 쪽 떼어주고
부뭇골 따듯한 불빛 한 줌으로도
얼어붙은 몸을 녹여
넉넉한 풍경을 짓는다.

봄, 바람 속을 걷다

봄날, 바람 속을 들여다보면
바람에서도 향기가 난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져버린 명울 같은
알곳은 이야기가 스멀스멀 걸어 나온다
보내지 못하고 봄을 맞는
밀봉된 편지
꼭 다문 입술이 안부를 묻는 봄
쳐진 어깨로 바람 무늬 속을 걸으며
바람의 향기를 더듬어 본다
시리고 아프다
봄을 끌고 와 붉게 터트리고 싶었을까
온 몸 가득 열꽃이 핀다.

섬진강 연정

친구여

고향 너른 들판 가로질러
마르지 않고 흐르던 섬진강
아직도 면면히 흐르고 있는가
대사리 재첩 국물에 우리나라
유년을 돌아
제 몸 구기며 밤으로 흘러드는
섬진강 물소리
밤이 낮을 범하던 날부터
흐르지 못해 갇혀있는 향수,
하마 얹어졌을 마음의 병 도져
날로 깊어지는데
낡은 시간의 껍질을 벗기면
그 강물 여기까지 흘러
메마른 가슴 깊은 골까지
물비늘로 촉촉이 적셔주려나.

풍경 속을 산책하다

내가 산책하는 공간은
눈과 마음의 거리
창문 밖을 바라보며 다녀온 거리가
하루 분량의 산책길이다.
풍경 속을 산책하는 일은
마음 속 체증을 달래는 일이다.
건너편 아파트 공터에 다녀오거나
고압선 철탑 위에 앉았다 오거나
멀리 구름 속을 지나 언뜻 보이는 푸른 빛 하늘 위를
마음껏 날아다니다 오기도 하고
새로 생긴 아파트 창문을 하나 둘 세어 보기도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녀오는 그 산책길에서
나의 하루는 힐링해지고 점점 녹슬고 있다.
지루한 날이면 내 풍경 속에 사는 것들을
하나 둘 호명해본다.
자주 보는 것들이 낯설고 어색하게 다가선다.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한 무리 인정들과
그들이 가로지른 흔적 위를
빠르게 지우며 지나쳐가는 자동차들
씨줄과 날줄이 정확하게 비껴가는
마술 같은 시간은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내 풍경 속을 바빠 지나쳐 가는 익명의 잔영들
저토록 빨리 내 풍경 속을 빠져나가는 것은
내 풍경이 지루하고 차갑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저들이 멈춰선 곳은 어떤 곳일까
따뜻한 불빛을 켜놓은 창문 아래거나
날카로움이 없는 부드러운 공간일 것이다.

밤, 외출

가뒤편은 마음을 꺼내 술에 담근다.
적당히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 박동 소리가 굵어지면
내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사람이 사는 마을에 내걸린 불빛을 따라 들어가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내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려는 무모함을 위해 술을 마신다.
낮선 이들의 눈 속으로 아직까지 사람일지도 모를 내가 들어가고
그들의 입술이 빗어놓은 칼에 사람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려나간다.
잘린 마음이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거나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물어뜯어 상처를 낸다.

바람이 분다
사람들이 켜놓은 불이 꺼진다.
어둠이 목을 조른다.
이제, 오랫동안 꺼놓은 내 안의 불을 켤 시간,
사람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사람이 되고 싶은 등불이 걸린다.

강천사의 농익은 가을

그냥 농칠 뻔한 가을,
하늘에서 가을을 길러 내려온 두레박
그 꼬트머리 줄을 잡아당겨
메타세콰이어 붉은 길을 지나
강천사 단풍을 보러갔습니다
단풍보다 더 붉은 사람들의 숲을 지나
병풍폭포 물줄기에
시시콜콜한 생각들을 씻어내고
기억을 더듬어
일주문이 써놓은 편지를 읽습니다
옛 기억 속의 비구니는 보이지 않고
법당 뒤뜰에 농익은 가을빛만
줄고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바다

검붉은 땅이 끝나는 곳에
바다가 있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릴 기세로
흰 이 드러내고 웃는 바다.

어느 여류 작가가
가슴으로 부르던 겨울바다
모두 떠나버린 텅 빈 바다
쓸쓸함이 파도에 쓸려 가는
겨울바다에 서면
살아 있음이 다행으로 느껴진다.

정이 동으로 동이 정으로
돌고 돌아 만나는 곳
내가 바다가 되고
바다가 또 내가 된다.

비어 있어도
쓸쓸하지 않는
겨울 바다
그곳에 가고 싶다.

바다가 보이는 풍경

물로 기어올라
푸른 꿈을 꾸는 바다
관절 꺾인 줄기 다시 일으켜 세워
싱싱한 눈부심으로 풀꽃을 피우고
비로소 바다로 길을 여는 초봄,
세상 끝으로 가는 바람 붙들어
가지마다 바다를 퍼 올린 미루나무 숲
어두운 기억들을 풀어 놓는다
어쩌면 이 푸름도 한때는
버리지 못해 어둠 속에 묻어둔
삭혀지지 않는
슬픔의 알갱이였으리라

눈을 기다리는 마음

겨울이 열린 지 오래
눈을 기다리는 마음은
손발 뽁뽁 얼도록 눈발에 강아지 되어 뛰놀던
코 흘릴 적 마음이 되고
빙판 놀이터에 어머니 고향소리 바람에 묻어오면
아쉬움 떼어두고 얼어붙은 눈독 지나
집 향해 가던 그날이 그리워 그리워

햇빛 가둔 오후,
실눈 뜨고 창밖 하늘 향한 혹시나 하는 마음은
고향집 울타리 눈꽃으로 도란도란 피어나고
눈발 성성한 언덕, 나뭇가지 꺾어
원숭이 엉덩이 될 때까지 눈썰매 타던
친구들 그리워 그리워

눈을 기다리는 마음
겨울비에 젖어 녹아내리고
고향 토담집 좁은 골목 흰 눈 치우던 기억들은
새마을 사업 바람 타고 헐리고 헐리어
겨울이 온다 한들 눈이 온다 한들
그 겨울 그 눈발 아님이 못내 아쉬워
마음은 도심의 빌딩 숲에서 차갑게 굳어만 간다.

안부

친구야,
나란히 앉아 소곤거리듯
밝고 싱그러운 안부를
내 귓전에 살짝 내려놓을 때마다
시들해진 서툰 삶의 그늘 깊숙한 곳에도
따뜻한 별이 든다.

친구야,
네 목소리를 따라 들어가
뒤집어 쓴 세월 훌훌 벗어던지고
창밖 풍경 속 풀꽃처럼
바람과 속살거리고 싶다
한없이 흔들리고 싶다

제 3 부

꽃이 그리운 날에

나이 들어가며
꽃이 그리운 날이 많다.
꽃이 활짝 피어있던
그 시절에 몰랐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안타까운 아픔이다.

꽃이 그리운 날에

꽃 다 지고 내 빈 뜰 안은
생기 잃은 가을 햇볕만 노닐고 있다
빈 집 마루에 걸터앉아
가난한 가을별을 붙잡고 있는
긴 그림자의 가냘픈 떨림을
그대, 바라본 적 있는가

저무는 하늘빛이 아쉬워
긴 그림자 붙잡고
해질녘 조바심으로 바라보던
인적 끊긴 빈터,
일렁이던 가을별이
홀로 바라보던
저녁 강 물비늘 마냥 서럽더이다

마음 가두고
눈으로만 속내를 가늠하던
꽃무더기 무성하던 날들,
가슴을 뛰게 하던 시절들이
꽃 지듯 풀풀 떨어지고
빈 가지를 스쳐가는 눈길에도
괜히 코끝 시리더이다.

내가 바라보던 것들이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는
어미젖을 물고 올려다보던 하늘,
구름 사이로 고개 내밀던 그 빗갈이 하도 눈부셔
그리운 순간들을 잊고 지나왔을까
세상은 늘 넉넉하지 않고 굶주려 있음을
잊고 지냈던 탓일까
잊히는 것들과 기억하는 것들의 힘겨루기로
팽팽해진 마당에 여우비처럼 쏟아지던
험한 햇살은 왜 그리도 허망하게 지나가는지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말을 걸면 금방이라도 와락 달려들 것 같은 것들이
때로는 눈물이 되기도 하고
가슴조이며 아픔이 되기도 한다.
내가 사뿐 걸음으로 나지막이 다가가
숨죽이며 바라만 보아도
세상 모든 것들은 가슴을 풀어 헤치고
굶주린 내 입에
통통 부풀어 오른 젖가슴을
넉넉하게 물려주는 어미가 되는 것이다.

마흔, 중턱에 서서

나는 지금 초록을 벗은 잎을 달고
가을 한 귀퉁이를 걸어가고 있다.
시나브로 물들어 가는 잎들이
푸석푸석 먼지를 털어 내는 정오를 지나
뜨겁게 달려온 여름 무성함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코 끝 찡해지는 오후를 서성거린다.
가지 끝 휘도록 등불을 매달고
기지개를 켜던 사월,
기다림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그날의 촌촌한 기억에
탐욕의 이빨이 깊게 박혀
나는 점점 짙어지는 가을,
그 깊은 쪽빛 하늘이
자꾸 두려워지는 것이다.

내 안의 남자에게

아.....,
속으로 눈물을 삼키는 남자여,
21세기의 모퉁이를
초침처럼 바빠 돌아가는 남자여.
오늘은 잠시 걸음을 멈추어라.
그대가 아니어도 세상은
변함없이 빛날 것이다.
돌아누운 아내의 등을
상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거라
투정부리다 잠든
아이들의 그늘진 이마를
가만히 만져보려 하지 마라.
미루나무 꼭대기 까치집처럼
그대도 충분히 따뜻했고 아팠으므로
더 이상 아파하지 마라
오늘은 어둠을 방패삼아 숨죽여 울지 말고
당당하게 소리 질러 울어라
답답함을 눈물로 쏟아내려라.

어둠이 된 남자

주렁주렁 세상을 끌고 가는 저 남자
날은 어둑한데 질질질 끌려가다 멈칫,
세상이 물들어 어두워진다.
세상이 그리 쉽게 포획되지 않으리란 걸
그 남자도 알고 있었으리라
아니 세상의 수렁에 빠진
지친 발목을 빼내려는 것인지도 몰라
점점 깊이 빠져드는 몸뚱이를 건져보려 버둥대다
세상 먹살을 잡고 저렇듯 비틀거리며 끌고 가는 것이겠지.
동짓달 들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리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남자
만만치 않은 세상에 저당 잡힌 생의 껍데기를 내던지고
발목부터 어둠이 되어가는 저 남자
점점 어둠이 되는, 끝내 어둠이 된 남자.

흔들리는 날의 일기

흔들리는 날엔 일기를 쓴다.
익숙한 시간으로 포장된 삶과
침묵하는 낮선 풍경들은
내가 걸어온 길모퉁이에서 조등처럼 흔들리며
지워진 길을 뿔어내고 하루를 닫는다
흔들리는 것은 멈추기 위한 초조함 인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인가
비밀스런 웃음으로 세상을 가리고
눈인사로 가벼이 던진 농담에 익숙해진
빈 하루를 안타까이 살았구나.

약속된 시간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면서도
목숨을 값아 먹으며 또 하루를 살았구나
절망은 안개처럼 낮게 깔리고
분간할 수 없는 시간의 늪에 빠져
오랜 기다림도 소용없음을 알았을 때
마지막으로 내뿜는 신음, 온몸에 번지는 절망.
어두운 하늘 아래 우리는
차가운 손을 비비며 습관처럼 또 하루를 살아야 하는가
버리지 못하고 짊어지고 용케 살아내야 하는가.

가끔은

가끔은
나를 들여다보자
이런저런 일들을 핑계로 소홀했던
나를 들여다보자
지척에 핀 꽃들도 시샘하듯
제 단장하느라 세월을 보내는데
버려 둔 내 삶에게
마지막 날 전해 줄
부끄럽지 않은 말 한마디
조출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
꽤낼 수 없는 상처 따위 이겨내 보자
아프면 아파하고 힘들면 기꺼이 힘들어하자
쫓기듯 바쁘게 지나온 길에서
잠시 비켜서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내일 또다시 폭풍우 속을 걸어
더 먼 길을 나설지라도
그동안 잘 버텨준 가슴을
포근하게 꼬옥 안아주자
길은 끝나지 않고
어디로든 끝없이 이어지니까.

그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그는 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초라함을 조금이라도 감출 수 있는
겉겹이 쌓인 어둠의 벽을 유난히도 좋아했다
침이 마르도록 말이 하고 싶어
누구라도 곁에 있어주기를
잠깐 동안의 얘기만이라도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는 웃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설움의 그림자였고 방향을 잃은 삶의 절규였고
자기방어 수단에 불과했다
그의 밤은 하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가라앉아 어두운 그늘만을 찾아 눕는다

그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사랑할 수 없었다
로댕의 사랑보다는 까미유 끌로델의 사랑을 더 좋아했다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어떤 것이 사랑인 줄도
가슴이 아파도 아파할 수도 없었다

그는 밤마다 소리 죽여 울었다
붙잡을 수 없었던 이별의 고통도
혼자서 이겨내야 하는 끝없는 기다림임을 알았다
단 한 번도 소리 내어 울지 못하고
죽음보다 더 견디기 힘든 침묵 속에서
마른풀처럼 여우고 있었다

그는 이제 밝은 햇살을 그리워하기로 했다
밤보다는 아침햇살을 그리워하기로 했고
메아리 없는 가슴속 울림이 허무하다 해도
꽃보다 아름다운 희생의 힘만이
영원불멸의 사랑으로 완성됨을 알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마음 벗고 서다

시퍼런 칼날 위를 걷는다
바람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들어가
손에 잡히는 말(言)들을
상한 마음 곁에 눕히고
칼날이 그어놓은 아픔을 다독인다.
차가운 칼날을 달귀
온몸에 화인을 찍는 말, 말들
온몸으로 받아들여
무디게 삭혀낸다는 것,
겨울 문턱에 걸터앉은
마지막 남은 달력 속
나목(裸木)의 횡한 눈빛 같은
그 쓸쓸함,
벗은 몸으로 버터내는 눈물겨움.
어느 누가
칼날 위를 맨발로 걷고 싶겠는가.

날아오르기 위하여

밤새 뒤집어 쓴 껍데기를 벗고
알맹이가 기지개를 켜다
몇 날 며칠 동안 날아오르는 꿈을 꾸었다
간밤에도 날개는 돋지 않아
늘어지고 비대해진 몸뚱이만큼이나
생각이 무거워져 도무지 날아오를 수 없다
비게 덩어리 나를 떠나고 싶었다
멀리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무작정 떠나고 싶었다.
날아오르기 위한 내 안의 생각들이
파지로 구겨져 널브러져 있다.

비에 젖다

바람에 쓰러진 풀잎들이
어깨를 걸고 비를 맞는다
여물지 않은 삶을 다독이며
온몸으로 비를 맞다보면
생의 깊숙한 골목 끝에 기대 선
떠나지 못한 오늘이 보인다.
당당하게 비를 맞는 다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으랴
오늘의 어둠을 걷어내는 빛살을 당겨
어둠 속 울림을 끌어안고
고단함을 지나 내일로 가자.
등을 보이지 말자
고개를 숙이지 말자
기왕 젖을 바에 속살까지 젖자

길들여지다

배가 따뜻해지니 도무지
소식적 고픈 눈물이 이유 없다
초등학교에서 몇 번 맞이한 겨울
용의검사 대뿌리 회초리보다
칼날 같은 도랑물이 더 수월하다
날을 세우고 흐르는 도랑물에
까만 손등 조약돌로 박박 문지르면
도랑물도 놀리듯이
또랑또랑 흐르지 않고 칼칼 흐른다
급식빵 트럭에 매달려 빵 한 조각에 목숨을 걸던
그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가서
그날의 기억들을 갉아먹고 있을까

강산이 여러 번 바뀌고 흘러
그 날의 기억들을 애써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 길들여진 나를 만나고
패스트푸드로 만들어진 세상을 만난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갉아먹은 기억처럼 알궂은 것인가.

개운치 않은 날

게으름으로 버려진
지필묵연(紙筆墨硯),
먼지를 털고 먹을 간다
수묵의 여백 따라
오래 누워 지낸 집요한 잡념들이 번지고
파지처럼 구겨지는
목에 걸린 빗바랜 사고,
무턱대고 구역질로 꿈만 키워보는
개운치 않은 날

짙은 안개에 덮인
어둠의 벽이
내 키만큼 훌쩍 자라
목이 마르고 숨이 막히는 오후,
완성되지 못한 그림을 보며
정지된 의식을 깨우려 해도
길들여진 시간 속으로
다시 기어드는
개운치 않은 날

겨울나무

안으로 안으로만 오므리는
겨울나무를 보라
신록으로 부풀린 살점
똑똑 떼어내고
허물을 벗는 겨울나무

철따라 등이 휘고 팔이 굽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겨울나무는
이 겨울이 위태롭다
부러지면 새 움 틈우지 못하리
새소리 매달지 못하리
가까스로 손 벌려
성긴 햇살 움켜쥔다

수액 빠져나간 등 시려도
멈춤 없이 흔들어야 해
땅 속 깊이 묻힌 봄을 깨워
새 잎 만들어야 해
혈거운 서른일곱 나이테
단단히 그려 넣어야 해
살아서는 떠날 수 없는 그 자리에
벗은 몸으로 서서.

고독한 길

황폐한 세상 지루한 시간들이
강요된 고독한 길을
익명의 탈을 쓰고 걷고 있다
시간과 함께 부패되는 길
길의 끝은 이미 지워졌거나
처음부터 없었는지 모른다
표정 없는 무인칭의 우리가
기계처럼 끌려가는 길
삶어진 세상의 껍데기들이
게걸스럽게 웃음을 던지고
세상의 꼬트머리를 향해가는
황폐한 시간의 발목을 잡고
뜨거워진 가슴을 식히고 있다
숨죽여 피었다 지는 들꽃처럼
조출한 시간이 무심히 걷고 있다.

깨진 거울을 보다

품 나게 살고 싶었지요 허리 굽히고 살고 싶지 않았지요 못 배운 티 안내려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지요 새끼들 밥 안 굶기려고 자존심 버리며 어금니 짹 깨물고 버텼지요 메마른 가슴이 푸석푸석 자꾸만 부서지고 하루해는 벌써 서산을 넘고 있네요 제대로 한 것 없이 허둥대며 신발 뒤창만 닳게 했지요 눈이 침침하고 숨이 막히네요 가야할 길이 막막해서 잠시 주저앉았을 뿐인데 몸은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드네요

축 쳐진 어깨에 감춰진 어수룩한 눈빛을 지우려 부셔버린 거울 속에서 수 십 수백 개의 눈들이 살아나 내 삶의 껍데기를 벗기고 살아온 날들의 날카로운 파편들이 날을 세워 심장을 발기발기 찢으려 하네요 온기 잃은 몸에서 빠져나온 비루한 것들이 길을 내고 강물로 흐르고 있는데 세상의 늪에 깊이 빠진 발목을 도무지 뺄 수가 없네요

해가 지고나면 오래된 기억들이 내 아랫도리를 붙잡고 아침으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사슬로 꽂꽂 매두려 하겠지요 동쪽으로 밤새 걸어가 아침 햇살을 보고 싶은데 세상의 덧에 걸린 발목이 꿈쩍을 하지 않네요 어찌면 불박인 이 자리에서 끝내 어둠이 되어야 가벼이 날아오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대로 잠들면 날마다 꿈꾸던 유년의 아침은 끝내 열리지 않겠지요.

나만의 공간

어둠으로 소외된 공간
빈 의자와 흔들리는 갓등,
초췌한 인상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패잔병처럼 흩어져 있다.

시간과의 싸움으로 굴복되어지는 삶은
항거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습관처럼 보여주는 의미 없는 흔적과
불안한 자유뿐,

짓눌려진 어깨를 털며
허공 속에 감춰진 불빛을 본다
그 속에 혼란과 두려움으로 통하는
문이 희미하게 보이고 얼룩진 삶이
투영되어 보인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다
눈이 부시도록 잔인한 빛을,
미아처럼 떠도는
또 다른 나를 보았다

소문

비워야 채워지는 술잔
가득 채운 술잔에 뜬소문에
누군가는 살아 온 삶을 지우고
상처로 남은 말의 흔적에
건배를 청한다
위하여를 위하여 건배를 한다
잔이 말라 푸석 푸석 흠어질 때까지
건배의 잔을 든다
누군가의 그대여
알맹이를 잃고 껍데기만으로
살아온 그대의 길 위에
이제 쉼표를 지우고 마침표를 찍어다오
그대의 길 위를 지나던 바람이
속절없이 먼저 돌아설지라도
마음 다쳐 주저앉지 마라
칼날에 다친 마음을 도려내지 마라
심장을 들뜨게 한 오늘의 삶이
거울처럼 그대를 비출 것이니

삶을 외면하다

지나온 길은
멋대로 휘어진 아픔이다
흰 아픔을 펴기 위한 뒤척임
이제 삶을 외면하려 한다
외면하지 않으면 더 아플 것 같아
무더진 감각의 더께를 뜯어내고
성난 아픔을 감추려 한다
속절없는 시간의 꺾적을 무심히 바라보는 새벽녘
쉴쉴해진 눈빛이 애처로워
깊숙이 가라앉은 상처의 흔적을 가만히 만져본다
겹겹이 벽을 쌓고 침잠하는 생의 알갱이들
날아오르기 위해 퍼덕이던 서툰 몸짓으로
꺾인 날개를 끌고 어두운 곳으로 기어들어가
지나온 날들의 흔적을 더듬는다
멈추지 않는 가여운 심장의 아우성
오늘은 조바심마저도
흐린 하늘빛처럼 불편하다.

혼자 맞는 아침

여보게, 홀로 이유 없는 밤을 지나쳐 와
새벽 어디쯤에서 무거운 시름을 내려놓고
잠시 잠들다 깨어나 빈 어둠을 바라보게.
문득 들이키는 공기가, 혼자 맞는 아침의 미지근한 공기가
얼마나 슬픈 무게로 폐 속 깊숙이 외면하듯 박히는지
숨을 죽이고 가만히 들여다보게
하루 만이라도 망각의 그늘로 기어 들어가
낮은 자세로 침잠하듯 살다보면
바라볼 풍경조차 없는 사각의 방
그들의 윤곽이 얼마나 뚜렷한지
그때는 어렵פות이 기억하게 될 것이네만
한동안 웅크리듯 갇혀 지내다
누에나방처럼 부화되고 싶은 적이 있는가
꿈꾸며 살아온 날들의 꿈틀거리는 마디마디가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덧나고
끈적끈적 갱엿처럼 오래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를
멈춘 시간 속에 놓여있는 혼자 맞는 아침 풍경에
뒹어쓰워 보면 알게 될 걸세,
차라리 짙은 어둠이 그래도 다행이라는 것을.....
지나온 날들이 허망하고 서러워
괜히 엄살을 떨어보는 것이라고.....
초라함과 마주앉아 뜯눈으로 맞이하는 아침,
낮은 곳으로 돌아가 쓸쓸함으로 일기를 쓰는 것이라네.

제 4 부

오후 세 시의 풍경

마흔을 넘기면서
저물어 가는 하루가 간단하지 않았다.
오후 세 시를 지나가는 불혹의 나이
그 날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되리라.

때로는 낯선 길에 선 이정표가 되고 싶다

때로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걸어가 보고 싶을 때가 있다.
생각으로 가득찬 바구니를 비우고
먼저 간 마음의 꿈무늬를 따라
무작정 걸어보고 싶을 때가 있다.
내가 낯설게 걸어간 길의 끝에서
어쩌면 머리 하얗게 새도록 나를 기다렸을
역새풀 같은 세월을 머리에 두른 이정표가
우두커니 서있을지도 모를 일
때로는 낯선 길에 선 이정표가 되어
버리지 못하고 짊어지고 간
쉽게 잊힐 것들의 목록을 풀어
어깨를 가볍게 하고 싶다.
잊혀짐이란 얼마나 다행스런 일이냐
비워내지 못한 어제와 억지로 채우려는 오늘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저울질을 해야 했던가
버린다는 것은 가벼워진다는 것,
가끔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잊혀지기 위해
일방통행 길을 걸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무작정 가보고 싶을 때가 있다.

지은 죄

천둥소리에 몸을 웅크리고
가슴을 조인다.
살아오면서 지은 죄 너무 많아
지우지 못한 죄의 무게
가늠할 수 없는 것도 큰 죄,
죄가 많은 사람은
잔뜩 웅크리고 잔다던데
내 잠버릇이 그러하다
하긴 지은 죄가 하나 둘이겠는가
부모공양 못한 죄
남편노릇 못한 죄
애비노릇 못한 죄
못한 죄 못한 죄
죄 죄 죄
필시 내 죄 값은
내 몸보다 웃자라
그 그늘에 갇혀 오래오래
죄의 껍질을 벗겨야 하리라

새벽 일기 1

진하디 진한 우울모드를 깔고
잠자리에 눕는다
쉬 잠들 수 없는 습기 진한 밤.
내 몸이 빠져나온 고치에 벗어 둔 온기가
멍하니 내 기척을 바라본다.
존재의 틀에 허물을 벗어두고
알맹이만 빠져나오는 것
이별은 이런 것이구나.
있음과 없음이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
죽는 순간까지 멀리 날기 위해 연습 하는 것,
날아오르는 그 환희의 순간이 이별이구나.
익숙함을 아프게 찢으며
어색함으로 날아간다는 것이 이별이구나.

가려운 날개의 흔적을 파닥거려 본다.
내 전생이 날짐승이었는지도 몰라
회귀를 꿈꾸며 본능의 움직임을 따라
불 꺼진 공간을 느린 박자로 이리저리 걸어보다가
쓸쓸해진 소파에 내려앉아 우두커니 어둠을 바라본다.
어둠이 삼켜버린 존재에 대한 막연함으로
사방이 쓸쓸하고 어색하다.
오늘과 내일의 시간이 뒤섞이는 공간을 밀어내고
어정쩡한 어둠으로 채워진 풍경들은
과거의 흔적처럼 낡았지만 고요하다.

새벽 일기 2

베란다 창에 머리를 기대고
창밖의 어둠을 본다.
어둠은 쓸쓸하거나 고요하다.
막 어둠을 벗어난 풍경의 소스라침에
잠에서 깬 내 의식이 부팅된다.
깨어남은 존재의 부활
고요가 흔들려 사방이 어지럽다
여기 저기 떠있던 불빛들이
유성처럼 꼬리를 매달고 사라진다
멀어지는 자동차 불빛은
어디로 가서 무엇이 될까.
불빛의 궤적을 따라가다 멈칫
우주 공간 속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또 다른 나를 본다.
긴 호흡으로 폐를 씻고
따뜻함이 지워진 어둠과 헤어져 돌아온다.
방안은 아직 어둠이다.
머뭇거림 끝에 컴퓨터 전원을 넣는다.
컴퓨터가 천천히 살아난다.
죽어있던 컴퓨터를 윈터치로 살린 내가
하느님처럼 커 보이는 새벽.
십자가 붉은 불빛이
내 좁은 공간에 낮게 내려앉는다.

새벽 일기 3

새벽 개 짖는 소리가
앞산을 가만히 들었다 내려놓는다.
잠들어 있던 나무들이
한 순간 들어 올려져 기우뚱,
중심을 잡으려 다시 기우뚱.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간격을
흔들흔들 초침이 지나고 있다.
고요를 흔드는 것이 어디 개 짖는 소리뿐이라
잠들지 못한 자들의 마음도
오래 묵은 고요를 흔들어
오는 자와 가는 자들의
덧난 상처를 만지고 있는 것.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허리 굽은 가로등도 새벽이 되면
흔들림으로 가끔씩 졸다 깨어나
아침맞이로 분주해지겠지.
세상의 모든 빛들을 집어 삼키고
아침 해를 잉태한 새벽하늘이
은하수 다리를 건너
만삭의 몸으로 뒹뒹 오겠지.

오후 세 시의 풍경

오후 한 나절
돌고 돌아 온 길이
만만치 않은 탓이라
가우뚱 기운 고개만큼
험거운 세상도 따라 기울고
멈춰 선 발자국들이
늘어지게 조롱하는 오후,
어정쩡하다는 것은 이런 것인가
헝클어져 감을 잡을 수 없는
세상에 걸터앉은 풍경 속 모퉁이를
느리고 어색하게 걸어본다.
남루한 골목 어디쯤에서
망각의 고삐에 묶인 나의 삶은
어느 누구의 삶에 기대어
마냥 졸고 있을까

오후 세 시 즈음 지나는
나의 풍경이 괜히 슬프다.

하산

한 때,
피가 더워 주체할 수 없는 정신으로
방향의 길목을 서성일 때도
세상이 손에 잡히는 거리에 있는 줄만 알았다.
산 위에 올라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득하다.
만만하던 세상 제대로 잡아보지 못하고
가뉘두지 못한 마음 때문에
갈잎처럼 푸석거리거나
아무렇게나 구겨진 휴지처럼
세상 변두리에서 잠들던 날이면
손끝 발끝이 먼저 저리다

이제 산을 내려가야 할 때,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세상 밑바닥을 적시는 강물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스며들어
눈물겨운 삶을 붙들고 버터내는 자들의
가난한 발목을 적시고 싶다.

外道

계곡을 타고 흐르던
거센 물줄기가 흐름을 멈추고
화선지에 오래 고여 있다
정작 있어야 할 곳에
이름 하나 걸어두지 못하고
도둑괘나마냥 주변만 어슬렁거리다 돌아온 날
자정 넘어 목구멍 속으로 담배 연기를 삼키며
하나 둘 꺼져가는 세상의 불빛을 본다
어둔 하늘에
세상의 슬픔들을 삼킨 눈썹달이 떠 있다
그림 속 *잔 에뷔테른의 슬픈 눈 같다
모딜리아니의 사랑을 읽는다
먹을 간다. 소통을 위해
갈기 세운 엇갈림을 갈고
길을 지워버린 게으름을 갈고
녹슨 시간을 농익은 꿈틀거림으로 간다.

* 잔 에뷔테른 : 짧은 생애를 미친 듯이 살다 간 애콜 드 빠리의 대표적인 작가 모딜리아니의 죽음을 슬퍼하다 그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죽음과 맞바꾼 모딜리아니의 반려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문득 내게 말을 걸어본다 별일 없이 잘 지내는가 잘 지내고 있긴 하는가 몇 번이고 되물어보는 요즘 근황 분명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진 뭔가가 가슴 속에 맺히지 않는다 하릴없이 지나쳐 가는 하루하루들 지나치는 사람들마다 측은해지는 속내가 엿보이고 그들과 이어진 수많은 줄기들이 보인다 그 줄기를 따라 들어가 보면 달라진 것들의 참모습을 건질 수 있을까 도무지 갈무리되지 않는 생각의 타래들 침침한 저녁 어스름 같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나는.

외톨이 반늑은이

어느 시인의 시를 읽으며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집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밀려나는 일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문 밖에서 가족들을 위해
저물도록 돌아다니다가
어둠이 짙어지고 달이 기울면 그때 비로소
빈 골목에 발자국 소리 질질 끌며
고래고래 소리 질러 식구들을 깨우고
대문을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속마음을 내비치면 사내답지 못한 것이라고
헛기침으로 나를 감추며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름이 가고
내게도 가을이 왔습니다.
자식들도 슬슬 눈치를 보며
제 어미 편에 서있거나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땡출이들을 보며
거시기 떼어버리라고 놀렸습니다.
가족들만 아는 사람들을 보며 찢찢.....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듯 혀를 찼습니다.
지천명에 올라 나를 내려다보니
세상과 타협하며 아직도 숨바꼭질 하고 있는
귀밑머리 희끗해진 슬픔의 덩어리가
반쪽뿐인 내가 보입니다
집에 와도 반겨주는 아이들이 없는
외톨이 반늑은이가 세상에서 밀려나
우두커니 빈 몸으로 서있습니다.

파일을 정리하며

컴퓨터 전원을 넣어 부팅을 하고
꼬박 며칠을 들락거리며 방을 열고 들어가
쓸모없는 것들을 뒤져 휴지통에 버린다
한때는 쓸모 있다 싶어 한 자리 차지하였을 텐데
잘가라는 인사도 없이 떠나보내는 것이 남의 일 같지 않다
나도 언젠가는 유효기간을 다해 버려질 파일이다
남겨 놓을 것들과 지워야 할 것들의 목록이
머릿속에 들어와 뒤죽박죽 형클어져 뒹굴고 있다
손가락 끝에서 까딱으로 영원히 사라질 목록들
생년월일을 보니 까마득하다
먼지를 뒤집어 쓴 것들이 내 기억의 문을 연다
휴지통 가득 넘칠 것 같은 내 생의 이력들
허투른 공간 틈새로 빠져나간 잔챙이 기억들 사이에서
용케 버터 오래 살아남은 것들이
허망한 내 기억의 타래를 잡고 마구 흔들어대고 있다
몇 번의 망설임으로 지우고 마는 너희들에게
이별을 고한다는 것이 내 살 점을 도려내는 것 같아 미안하다
그런 것이다 남김과 버림은 순간의 선택이다
익숙한 것들의 자리바꿈도 그와 같은 것이다
있음과 없음도 그러하리니
버릴 것들은 눈 지그시 감고 떠나보내고
처음처럼 빈 마음일 수 있게 털어버리자.

불면

나는 하루를 꼬박 넘겨
새벽 중간쯤에 이르러
공중 부양하듯 허리를 가로로 펴고 눕는다
느리고 조심스런 움직임 위로
시계 초침소리가 가까이 다가와 눕고
마치 마지막 숨인 양
한껏 방안의 공기를 들여 마시고
어색한 팔의 위치를 요리조리 바꿔본다
걸어 온 길은 낯선 활자처럼
끊기거나 간간히 이어져
오래된 기억들이 뒤 엉킨다
기억이 지워진 길 위에서
잠은 비로소 가벼워져
아침을 향해 내달리는 것인지
억지 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새벽 세 시

不在를 적시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
가을 햇별이 몰래 베란다를 넘어 들어와
자리를 펴고 드러누워 있다
빈집 오후 한나절은 참으로 고즈넉하여 쓸쓸하다
눈길이 닿으면 푸두둑 살아나는 것들이
무료함에 엉겨 붙는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
눌어붙은 가을별을 걷어내려다 손끝에 묻어나온
촉촉한 것들이 흘린 눈물을 들여다본다
눈물은 아픔의 강이다
부재를 적시는 강이다
울음을 끌고 나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아프게 무늬를 새긴다
잠든 햇별의 이마에 물결무늬를 새긴다
부재를 적시는 무늬가 상처가 된다.

비와의 동침

날이 곳은 날은
억지 바람이 되어
아무나 붙들고 농을 걸고 싶다.
찌푸린 하늘을 향해
꺼이꺼이 울부짖듯 주문을 외우고
실실 미소를 흘리며
맨 몸으로 달려드는
미끈한 빗방울의 허벅지를 더듬고 싶다.
날카롭게 부서지는 꿈 저쪽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로 달려 온 너
너는 세상 온갖 것들의 이야기들을 버무려
젖은 집을 짓고 유혹의 창을 만든다.
마지막 남은 고단함으로
기꺼이 나와 하나가 되는 빗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껴보는
이 황홀한 침묵,
날카롭고 짜릿한 포옹의 순간
어찌 다 벗어 던지지 않고
천상에서 찾아 온 너를 맞이할 수 있으랴.

내 안의 섬

내 안에 섬이 떠 있다
인적이 찾지 않는 홀로 섬
반평생 내 안에 섬 하나 키우려
소중한 것들을 잃고 살았다

내가 섬인 줄 모르고 산 세월
어둠의 끝으로 날마다 가라앉는
오욕의 덩어리
나는 파도에 부서지는 섬이다.

늦은 밤 거울을 보며

늦은 밤, 거울을 본다.
불혹을 지나 하늘의 명을 깨닫기에는 너무 좁은
주름이 하나 둘 새겨진 이마를 가만히 짚어본다.
주름의 깊이만큼 세상을 향해 불거진 상처가 아프다
마른가지가 마지막으로 잎을 버릴 때
봄의 푸른 열망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내게 이어진 것들과 이별을 할 때
세상이 늘 푸르기를 바랄 수는 없다.
마른 입술이 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
모서리 세운 날카로운 환멸과
단내 나는 입술의 속삭임도
살아있음을 위한 위태로운 방어.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 떠나는 날
내 혈맥들의 맑은 눈자위에 드리울
그늘의 깊이가 두려워 엄살을 떨어보는,
어쩔 수 없는 나는
현재에 갇힌 과거의 화석.

블로그 친구

침침하고 어둑한 마음을
붉게 피워내는 사람이 있다.
몇 마디 댓글로 안부를 주고받는 익명의 친구,
낯설음이 부담스럽지 않는 친구,
만화영화 속 주인공처럼 긴 머리를 날리며
외딴 섬 같은 내 방에 실루엣으로 찾아와
반가이 악수를 청하듯
살포시 흔적을 내려놓고 가는 사람.
언제나 설레는 아침이 열리는 방
긴 거울에 비친 어둠 속 눈빛은
피아노 건반 위 석고상의 눈빛을 닮았다.
수많은 사연들을 풀어내는 여류 소설가
낡은 탁자 위 원고지에 번지는
먹물처럼 깊고 아득하다.
잔 에뷔테른의 눈빛처럼 슬프고 아련하다.
마음 사나운 날이면
무심코 문을 열고 들어가
시퍼렇게 날이 선 마음을 내려놓는다.
무심코 들어간 방에 걸린
푸른 풍경 속 파도에 마음이 쓸리고 씻기다 보면
안으로 다스려 유순해지고
몽돌처럼 저 홀로 단단해 지리라.

버리려 하는 것들에 대한 변명

언제부턴가 휴식이 필요했다
시간의 무게에 짓눌린 끈들이 고개를 들고
팽팽히 당겨진 긴장을 풀어헤친다
억지로 지탱해 온 기억 밖의 생각들은
오래 갇혀있어 등뼈가 휘었다
옥죄던 생각은 등뼈보다 단단하므로
늘 제자리걸음이거나 화석처럼 굳어있다
버리는 것들과 남기는 것들의 무게를 재본다
그 무게에 내려앉은 시간이 아프다
기억의 꼬트머리가 낡아 휘청거리는 것들
처음처럼 낯이 선 눈 밖의 것들
바로 세우지 못하고 밖으로 밀어내
세상의 옆구리에 비스듬히 기대어놓는다
한 번도 눈길 주지 못한 낡은 것들
손때 묻은 끈들이 느슨해질 무렵
나는 기어이 주저앉고 싶은 관절을 세우고
버려지는 것들의 이마에 질편한 마음을 대본다.

벽 속의 남자에게 말을 걸다

벽 속으로 어두운 얼굴의 남자가 걸어 들어간다
벽 속에도 길이 있다는 듯
잠시 머뭇거림도 없이 벽이 환해진다
벽 속으로 걸어 들어 간 남자의 등이
금빛으로 물들어 환하다
언제부터 벽은 제 속에 길을 키운 것일까
벽 속의 남자에게 말을 건다
투명해진 남자는 묵묵히 걸어 들어간 길을 지운다
벽은 금세 단단하게 굳어 차갑다
길이 지워진 벽을 더듬어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
멈추지 않는 휴대 전화 벨소리
롤러블레이드 스쳐지나가는 소리
무서운 속도로 활귀고 지나가는 소음들
소음이 소음을 먹는 소리.....
췌! 드 들린다, 드 들려.
찌르찌르 풀벌레소리,
갯버들 잔뿌리 간지럽히는 도랑물소리
만삭의 지어미 귀밑머리 쓸어주는 소리
웃음이 눈물을 다독이는 소리
벽 속으로 걸어 들어간 남자가 큰 소리로 웃는 소리
그 소리를 따라 숨죽여 우는 소리
느리게 들-린-다, 들-려.

환생을 꿈꾸다

밟히는 것들은 모두 신음 소리를 낸다
가을빛에 여위는 잎은 환생을 꿈꾸며 제 몸을 버리고
유효기간 지난 구두 밑창에 깔려 신음하는
일상의 흔적들 휘발되지 못해 등근 벽을 쌓는다
등뼈를 잃어버린 사내는 바람과 몸 섞고
구두 밑창에 낀 낡은 신음을 닦는다
환생 역으로 가는 길은 멀다

죽어 가는 것들은 모두 환생의 꿈을 꾀다
사내는 굶주린 이빨로 제 몸에 새겨진
욕망의 문신을 찢어 허기를 채우고
환생의 꿈에 젖는다
익명의 바람이 빠져나간 빈집에
떠나지 못한 것들이 둘러앉아 마지막 등불을 켜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늘 문이 열릴까

겨울일기

내게 이어진 것들이
맨몸으로 추위를 견디는 것도
손 끝 시려움도
좁은 혈관 비좁은 통로를 지나
억눌림 뒤의 분분한 아픔처럼
봄을 향해 열려있고

몇 번이고 확인해보는 존재의 막연함.
외롭다고 주책없이 너스레를 떠는 것도
내가 홀로 아위거나 가슴앓이 하는 것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의 무미건조한
존재에 대한 꿈틀거림이지.

이대로 내가
현재가 빠진 미래의 어느 시간으로
홀쩍 여행을 떠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야
텔레비전 드라마만 봐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
작은 상처에도 버럭 화가 나는 것은
살아있음에 대한 위태로운 방어.

술자리에서 별경게 달아오른 얼굴들의
단내 나는 입술의 뜨거운 환멸도
좁디좁은 머릿속에서 빔어낸
모서리 떨어져 나간 귀찮은 속삭임도
다 웃기는 일의 시작이며 끝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 떠나는 날
내 혈맥들의 맑은 눈자위에 드리울 그늘이
그냥 두려운 거야.

제 5 부

어머니의 겨울 밤

글을 쓰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시절
유년의 기억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 속에서 더 촘촘하게 되살아난다.
내 유년의 전부였던 어머니
어머니와의 영원한 이별.
그 이별이 나를 흔들었고 그 흔들림이
내가 글을 쓰는 이유가 되었다.

지는 꽃을 보다가

지는 꽃을 보다가
떨어진 꽃잎 위에 사람들이 남기고 간
삶의 이야기들을 내려놓습니다.
눈길 닿지 않은 들녘에 소리 없이 피었다 진
들꽃 같은 아무개 아픈 이야기와
아들 딸 너절너절 낳아
자식 농사 넉넉하게 짓다 간 아무개 이야기랑
살만하다 싶으니 저 쪽 세상에 필요하다하여
다 팽개치고 먼저 간 아무개 이야기 위에
오랫동안 간직한 이야기 하나 내려놓습니다.
숨이불 속에 나란히 누워
누룽지 맛으로 빛은 이야기꽃 몇 송이
머리말에 자리끼처럼 살짝 놓아주던 어머니,
깊은 산 속 응달에
홀로 피어 아쉬움으로 저버린 찔레꽃 같은
어머니의 숨소리는
꿈길까지 밝혀주었습니다.
지는 꽃을 한참 들여다보니
그렇그렇 자꾸 눈물이 납니다.

부드러운 곡선

텔레비전 속 하동 사람들의 사투리를 들으며
'하동댁'으로 불린
젊은 날의 내 어머니의 삶을 엿듣는다.
경상도 땅에 나서 섬진강 줄기를 따라
화계장터를 지나 구례 곡성을 거쳐
전라도 남원 땅에 뿌리를 내린 어머니
짧은 생애 여덟 배 자식을 낳아 기르다
더러는 가슴에 묻고
남은 자식들 불고 빨며 키우다
남원 땅 동구 밖에 젊은 뼈를 묻은 하동댁.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이어지는 경전선 선로처럼
아무렇게나 구겨지듯 휘어져 구불구불한
내 어머니의 삶.
경전선 철길은 마을로 깊숙이 들어가
작은 마을 인정들을
세상 밖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더 많이 곡선으로 휘며 이어졌으리.
세상 속에 숨어있는 간이역을 만나기 위해
애간장을 태우며 휘어졌으리.
구불구불 더 많이 구겨졌으리.

담배 피는 여자

오래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담배 피는 여자,
멋진 포즈의 실루엣으로 앉아
빛을 향해 뿜어내던
인상적인 담배 연기는 아니지만
어머니는 늘 담배를 입에 물고
한숨을 뿜어내셨다.
지워지지 않고 또렷하게
가끔 되살아나는 그 모습
한 봉지에 10원도 안 되는 봉초를
누런 종이에 침 발라 말아 피셨다.
객지에 나가 보금자리를 틀고 살던
지아비를 실컷 욕하고 나서도
침이 말라 쓸쓸해진 입에
담배를 말아 물고
쓴 세월을 들이마시고 길게 뿜어내셨지.
코 끝 스치는 쓴 담배 연기에
나는 문득 그리워지던 아버지를 불러보았지
들키지 않으려고
숨죽여 낮게 불러보았지.

깊은 사랑

실한 살점 못난 자식 놈 먹이려
뼈에 붙은 질긴 심줄
어렵게 떼어 드시던 울 엄니
조구도 머리만 떼어 드시던 울 엄니

-어머이, 왜 조구를 대글박만 묵어?
-조구는 대글박이 맛있응게 그라제.
-글먼 나도 대글박 묵을라네

왜 그때는 몰랐을꼬
자식새끼 낳아 길러보니 알겠네
울 엄니 깊은 사랑이 남긴
아프디 아픈 속내

어머니

어머니란 말 속에는
눈물이 들어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에게
눈물샘을 만들어
마르지 않는 눈물
가득 넣어둔 탓일까
어머니.....
나지막이 소리 내어 부르면
참을 수 없이 터지는 눈물샘,
어머니란 말 속에는
흘러도 흘러도 마르지 않는
눈물이 들어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세상에서 지워진
오래 묵은 이야기가 문득 그리워
낡은 사진을 꺼내들고
남루한 기억의 끝에
촛촛하게 되새김질 된
허황한 날들의 비린 냄새를 씻는다.
머무를 수 있는 시간만큼
생각도 따라 머물고
자라지 못한 생각의 무게로
헝클어져 뒤죽박죽된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처음처럼 낯선 사람을 데리고
느릿느릿 걸어 나온다.
정지된 그때 그 순간으로부터
오랜 시간을 지나
다시 시작될 이야기 하나가
오늘은 어색하게 말을 건넨다.

別離

가네 가네
눈물 얼룩진 흘적삼 벗어두고
나는 가네

잠시 내려놓은 마음 자락
백발머리에 이고
더는 못 간단 말도 못하고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나는 가네

다시는 못 볼
눈에 밟히는 것들
떼어두고 가자니
눈물이 발목을 잡네

길이 어둡네
두 눈에 불을 켜고
앞만 보고 가야겠네

기억조차 희미한 날의 아픔

늦겨울 해거름 산사
햇무리 일렁이는 등지에서 번득이는
비둘기의 소스라침,
눈매 훑는 자락에 묻어 오른 괴괴한 공허
강물인 양 흐르는 치유되지 못한
또 하나의 형상,

풍림을 지나
풍경소리만이 공허함을 부수고
한 줌 바람으로 스치면
물결치는 아지랑이 속에서 목 놓아 헤집는
가슴 저며 오는 기억들
찬찬한 회상에 물들어 간다

기억조차 희미한 검푸른 파도의 울림을 듣던 날
꽃상여 굽이돌아 흐르는 소금기 짙은 눈물
애써 추스르면
빈 메아리로 고이는 여운,

해넘이 공제선 위로 바람이 길게 눕고
목멘 비둘기 손수건을 날리면
마른 가슴으로 허우적거리다
흐르지 않는 강물에 목축이는
초췌한 낙엽이 애처롭다

공허한 초휴의 밤
가슴으로 쓸어안고 손 흔들던
기억의 파편들
달빛 내리는 잡목 숲에서
세월을 이고 선 낡은 산사 석탑 아래서
세정의 푸름으로 여워어 간다.

반원에 뿌리 내린 들꽃

-불효일기 1

강물에 얼굴 씻고 발 담근 산들이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에
소리 죽여 따라 붙었다
다 닳은 검정고무신 뚫린 밑창 가득
모래알 서걱이며 걷던 자갈길,
오랜 세월을 돌아
이제야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당신 흔적 안아보려 간다
가슴에 혹 달고 마흔 넷 고갯길
숨차다던 당신
외로움도 사치라며 눈 귀 닫고
쓴 세월 베고 눕더니
멍울진 가슴 열고 마중 나와
된 눈물 감추지나 앓을는지
- 어찌 그리 무심했느냐,
스무 해가 지나서야 어미 속마음
열어 보고 싶었느냐 -
코 흘릴 적 돌아서던
기억 속 길 설고 설어
몇 번이고 꺼내 보는 구겨진 시공(時空),
당신을 만나면 다 하지 못한
살아온 푸념이나 주절거려 볼까
벌써부터 주책스런 눈물이 고여
흐릿한 당신 모습 더듬을 수 있을는지
반원에 뿌리내린 들꽃
봄 햇살 그리운 빛으로 피기나 할까.

어머니의 겨울밤

- 불효일기 2

어머니는 언제나 새악시 빗어 내린 걸 고운 창포향 머릿결마냥 잡힐 듯 미끄러지는 세월을 안고 살았었다. 시퍼렇게 날을 세운 아버지 수염은 황량한 들녘 거친 억새풀로, 먼 길 떠날 나그네 분주함으로 목을 길게 세우고 밖을 향해 뻗어 어머니 가슴에는 이골이 난 서슬 푸른 칼날이 꽃혀있었다. 사립문 열어두고 기척마다 문틈에 귀 대어 보는 문풍지 슬피 울던 밤, 오지 않을 사람 기다리다 킁킁 밤 속앓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면 푸념으로 몰래 쓸어내리던 길고 긴 어머니의 겨울밤.

기다리지 말아요

- 불효일기 3

채우지 못한 가슴
꽃상여에 매달던 날부터
한마음으로 지켜 온
당신의 말씀이 비에 젖습니다
뭐가 그리 서러워
눈감지 못한 미옥한 세상에
당신은 빗소리로 오십니까
밤마다 꿈길 흐려 놓는
위로 받지 못할 빗갈도 향기도 없이
비에 젖은 지나온 날들이
잠들 수 없도록 서럽더이다
살아생전 한숨으로 기다리던 당신의 임,
먼 훗날 닫힌 가슴 열고
돌아오리라 하셨던가요
어찌 합니까
지금은 강 건너 간 바람인걸
안을 수 없는
세상 밖 바람인걸.

임이여 임이여

-불효일기 4

하늘빛 내려앉은 상여꽃 떨군 자리
해설피 이내 따라
얼룩으로 남은 세월
시나브로 물들어 갑니다
애옥살이 서러워
삼백예순다섯 날
한 올 한 올 손살피에 끼워두고
밤빛으로 울던 새 쉬어나 가라고
등지 틀어 바람 막아주던 임이여,
구천 떠도는 지친 영혼
편히 쉴 곳이야 없으랴만
진혼곡 목 메인 임의 허무도 내 뒹이거늘
하냥 그리운 마음 세월만 들춰봅니다
풀잎마다 알알이 이슬로 맺힌
사무친 정 어이하라고
그저 기다리라 하십니까
한사코 참으라 하십니까
질기디 질긴 목숨 석 달 열흘 도려내도
밤마다 비가 내립니다
바람조차 멈추지 않습니다.

아침식탁에서

-불효일기 5

밤새 달궂진 어둠의 잔해가 마지막 숨을 몰아 쉴 때 선잠 지운 충혈된 눈에 낀 얇은 막 사이로 경직된 아침이 열린다. 아침을 끌어 온 창이 열리면 마취에서 풀리는 어두운 기억들의 세포를 나는 다시 냉동시킨다. 살아서 죽어있는 냉동 인간의 무거운 눈빛과 차디찬 절망의 그림자를 밀어내며 몇 번의 들숨 날숨으로 목숨을 상처내고 미라처럼 굳어갈 하루를 생각한다. 아침 식탁에서 밥알을 씹으며 아들 놈 투정에 한 달 분의 20킬로그램짜리 쌀자루와 어색하게 잘라먹던 한 끼니 비후스텍 벌건 고깃덩이를 환산한다.

(수제비 무밥으로 배를 채우던 유년, 설움을 나눠주던 어머니는 끼니마다 부엌에 쪼그려 앉아 한숨을 말아 드셨다)

허리를 휘게 하는 세월조차도 삭혀내지 못하는 폐부 깊숙이 박힌 오래된 가시 하나, 바꿔내기 위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허기진 그 겨울의 상처와 냉동되지 못한 어머니의 움푹한 눈자위 허무를 버무려 꾸역꾸역 위장을 채운다.

가슴앓이로 부르는 이름

-불효일기 6

기억의 사슬에 얽힌 당신
내 안에 잠시 머물다 지워져 버린
화장기 없던 검게 그을린 그 얼굴이
오늘은 눈시울이 붉어지도록 그냥 그립다
취하면 습관처럼 뒤적여 보는 낡은 앨범 속,
도민증으로 얼룩져 남아있는 나를 닮은 영상,
어둠 속을 헤매다 한 줌 흙으로 흩어진 당신이 그리워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새벽별을 쬔다
아픔이 그리움으로 쌓이면 가슴앓이로 불러보는 이름,
목이 메어 손짓으로 말하던 당신의 마지막 모습을
가슴 한 칸 비워 묻어두고 몰래 꺼내 불러보는 이름
접고 또 접어 골마리에 감춰 둔
구겨진 지폐 꺼내 몇 번이고 만져보다
잡부금이 이러쿵 학비가 저러쿵 투덜대며 건네주던
명울을 가슴에 세월처럼 키워 온 사람
서럽도록 부르고 또 부르고 싶은
철부지 자식 '육실할 놈'이라 부르던 사람
가슴앓이로 부르면 불현듯 되살아나는
상처받은 기억 속의 그 이름
아 - 어머니, 내 어머니여!

빛장 풀다

-불효일기 7

파리한 꽃잎
젓빛 하늘 향기로
어지러이 흩어지고
휘어 감긴 산길 굽이굽이 마다
상흔으로 남은 아스라한 뒷모습
노을이 아픔으로 번지면
안타까운 마음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
저 고개 저 비탈 돌고 돌아
빛장 건 가슴 풀고
새벽별을 줍는다

눈물로 조각한 그리움

-불효일기 8

떨쳐 버릴 수 없이 젖어드는 그리움
술한 별들만큼이나 가슴 속에 남은 미련들
안타깝게 밤에 기대어 있습니다
붉어지던 눈시울도, 먼 하늘을 향한 그리움도
오직 당신을 향한 마음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미소조차 가르쳐주지 않은 채 당신은
짙은 황혼 속으로 떠나 버렸습니다
당신을 잃어버린 죄로 그늘진 계곡에서
차디 찬 가슴 피투성이가 되도록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차라리 잊고 싶은 기억들 속에서
정신을 휘감는 검은 굴레를 벗기려
표적 없이 찾아드는 고독의 그림자를
헤픈 웃음으로 쫓으려 했습니다
그럴수록 아픔은 더해만 가고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다
아낌없이 주던 당신의 사랑은
메마른 가슴에 깊은 갈림으로 남아
메울 수 없는 눈물의 샘을 만듭니다
이제 그 그리움마저도 지워 버리렵니다.
밤마다 올려다보던 그 별들을 이젠 잊을 수 있겠습니다
밤을 삼킨 새벽은 평온하고 고요하기만 합니다
서둘러 답답한 벽을 걷어내고 눈물로 조각한 그리움 꺼내
별빛 스미는 창가에 놓아두렵니다.

나, 어릴 적에 알았어야 했다

-불효일기 9

나 어릴 적에 알았어야 했다
까만 밤을 지킬 어둠과
나 외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고목나무 등걸보다 거친 주름진 얼굴
기억 속에서 퇴색되고 소년은
판도라 상자를 끌어안고 그날도
나지막이 울었다.

나 어릴 적에 알았어야 했다
새벽하늘 스산한 별빛과
나 외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얼음보다도 차가운 당신의 이별은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아 소년은
옷칠관을 끌어안고 그날도
소리죽여 울었다.

나 어릴 적에 알았어야 했다
당신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둠의 계곡 빈 메아리로 되돌아오는
죽음보다도 두려운 희망의 좌절 소년은
얼룩진 사진 끌어안고 그날도
눈물방울로 닦아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말이 없으시다

-불효일기 10

어머니는 내내 말이 없으시다
언 땅 위 잔잔한 별꽃이 오지랖에 박혀도
오뉴월 땡벌에 붉게 정수리가 벗겨져도
어머니는 좋다 싫다 말이 없으시다

섬진강 물줄기 따라
서운한 마음 실어 보내고도
드문드문 찾아와 뒤통을 만지는 자식 놈 가슴에
서운하다는 말 한 마디 내려놓지 못하는 당신

어머니 나이 마흔 넷
내 나이 마흔 다섯,
삼십 년 넘게 묻어 둔 속엿말
속 시원히 풀어내시라고 볼 맞대고 비비는데
어머니 붉은 볼에 핀 깨알만한 꽃 무더기
잔잔히 웃고 있네.

속앓이

속내 들키고 싶지 않아
조심조심 마음 오므리고
겉눈질로 뒤를 밟아보는
병어리 냉가슴

어찌 할거나
무정한 초저녁별
바빠 가자고 재촉하는데

제 6 부

한 쏘이 지다

세상의 어떤 것도 유효기간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관계로 만난
인연들의 끈끈한 삶,
그 생이 어찌 아프지 않으랴
내 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조차도 아픔인 것을.

나비

아버지 보내고 며칠 후
세상에 남겨진 흔적들,
생전에 당신이 정성으로 마련해 둔
양지 바른 언덕 갯가에서
아프게 하나 둘 떠나보낼 때
활활 붉게 타오르다 잿빛으로 날아오르는
나비들의 춤사위
주변을 맴돌다 차마 떠나지 못하고
발등에 내려앉은 나비 한 마리

끝내 뱉지 못한
마지막 말 한 마디.

할머니의 작은 섬

그 섬에는
죽은 듯 죽지 않은 시간이 바위처럼 누워
하루 종일 뜨지 않는 해를 기다린다
밤의 어디쯤에 멈춰 서서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놉 낯짝이 하도 궁금해
오늘은 찾아 나설 양으로
있는 힘을 다해 오그라든 등뼈를 꿈지락거려 본다
아직은 쓸 만하다 싶던 등뼈마저도
요 며칠 요란스레 뼈거덕거리더니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근 한 세기를 하늘을 떠받치고 살았으니 그럴 만도 하다
빈집 서까래 같은 갈비뼈 아래
쉴쉴해진 심장이 남은 온기를 다독거린다

살아서는 떠날 수 없는 섬,
아침 하늘에 노을이 걸리는 섬
할머니는
손때 묻은 음력 사월 초파일 달력에
쌍계사 벚꽃 소식이란
오작교에 비친 광한루 근황을 걸어 두고
기억을 더듬어 하루에도 몇 번씩 꽃구경을 다녀온단다
오랜 침묵의 시간을 거슬러 온 봄소식에
젊은 날의 화사한 것들을
한 올 한 올 뽑아 씨줄 날줄로 엮어
황천에 띄울 둥근 배를 만든다
웁푼 팬 우물 속 침침한 눈이 시리다.

누이 1

먼 산 지운 어둠이
별을 따라 간
누이 방 창가에 와서
손짓을 하면
산사 범종 울림 끝마다
별이 눈을 뜬다

서쪽 하늘에
별 하나가 새롭다.

누이 2

부산 침례병원 화상병동,
신문지 깔고 새우잠 든 사이
포르말린 냄새 바닥을 기어 다니고
긴 잠을 준비하는 너는
차가운 시트에 스물넷을
희미하게 그리다 만다
하얗게 시간이 정지한 하늘에
나는 검푸른 물감을 풀어 덧칠을 한다
(삶과 죽음 사이로 어두운 강물이 흐른다)
바다가 보이는 낮선 언덕 위에
풀 풀 너를 날리던 날,
아지랑이 속에서
제비나비 한 마리 날아올라
가던 길 차마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는다.

누이 3

서슬 푸른 지폐 들고
부른 배 두드리며 계산서 내밀 때
누이는 주린 배 채우려 라면 불러 먹고
남은 동전을 세고 있었다
눈부신 꼬부랑 간판 지하실에서
분위기 잡고 몸 비빌 때
누이는 야근 반장 치켜 뜬 눈살 두려워
줄린 눈꺼풀 밀어 올려야 했다
다음 학기 등록금,
붉은 전등 아래 구역질로 날릴 때
누이는 30층짜리 백열전등 밑 재봉틀에
손가락 물려 사경을 헤매야 했다
'오빠야 강변 살자'던
어두운 기억 속 세상이 싫어
그들의 천국이 싫어
그들보다 먼저
발 뺀고 누울 자리 찾아 떠나야 했다
감히 쳐다볼 수 없었던 대학 캠퍼스,
누이는 꽃다운 나이 동여매고
후미진 곳에 개망초 꽃으로 피어
빈 가슴으로 울어야 했다.

IMF 한가위

마음 찢겨 그럭저럭 살아가던
엷히고설킨 핏줄들이 모여
상을 차린다
상 위를 기웃거리는 보름달을 움켜쥐고
'亡室孺人韓山李氏 神位' 앞에 머리 조아리는
사내의 좁은 등쪽에 금이 가도
세대와 세대 사이의 벽은 견고하다

바람나무에게

여든 한 해 동안
흔들리면서도 용케 버티고 살아온
바람나무 한 그루
제각각 높낮이가 다른 바람소리를 내는
주렁주렁 매달린 가지들이
센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만 같았던
넓게 드리운 그늘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
시퍼렇게 날을 세웠던 날들
흐르는 강물을 가르려
마구잡이로 휘돌렸던 비수
허나 물비늘 한 조각 건어내지 못하고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 발등이 짝힙니다.

세월 꽃 진 자리 마른 잎 힘없이 흔들리는
양상한 남은 가지에 실바람 걸어두고
하얗게 웃는 당신,
당신의 웃는 모습이 오늘따라
코끝 시리도록 눈물겹습니다.
부디 그 웃음꽃 놓지 마세요.

조롱 속에 갇힌 새

-호스피스 병동에서

8-9-10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몸쓸 짓하다 걸린 놈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침이 마르다. 쿵쾅거리던 심장은 박자가 빨라지고 갑자기 요동을 친다. 차라리 오지말걸 그랬다 생각만으로 후회를 했을 때는 이미 몸이 병실에 들어서 있었다. 병실 안의 온기가 중생대 지층처럼 내려앉아 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미라처럼 침잠되어가는 그녀와 처음으로 눈이 마주친다. 눈인사를 건네다 시시쿨쿨하게 십여 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 숨이 막힐 듯한 어색함을 애써 지운다. 어색함을 지우려 꺼낸 그 말이 내가 준비한 것의 전부인 것처럼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몇 개월 전 죽을 고비를 넘긴 나의 안부를 묻는다. 그 말이 너무 서럽고 고마워 바빠 고개를 돌린다. 코끝이 자꾸만 간지럽다. 몇 순배 침묵이 흐르고 안타까운 시간을 밀쳐내고 돌아서 나오며 조심스레 내려놓던 몸조리 잘하란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고 자꾸만 속으로 기어들어가 목울대에 감긴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3-2-1, 배웅하다 슬프게 돌아서는 그녀의 반쪽 등 뒤에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어 미안하다는 말만 무겁게 던지고 병원 문을 나선다.

조롱 속에 갇힌

새 한 마리가

마지막 남은 기력으로

노래를 부른다

푸른 날개를 갖고 싶다고

복날 이후

지난봄부터 배가 불러오고 있었다
토실토실 살이 오르듯 끼니를 걸러도
차오르고 있었다
보름달로 뜨는 원수 같은 수태,
잔바람에도 맥박이 거칠게 뛴다
깊은 설움의 골로 녹아드는 새벽,
사랑방 수놓 새벽 기침 소리에
여름이 젖어있다
온몸 초조하게 저려오는 지난 복날,
둘째 녀석 외마디 비명으로 보낸 뒤
자지러지는 뒤집힌 정신 발밑에 밀어놓고
목 놓아 울 수도 없었던 어미는
해질녘 안방 암놈이 던져주고 간
둘째 녀석 다리뼈 입에 물고
참은 설움 꾸역꾸역 찢어내야 했다
파란 눈곱이 일어 잠들 수 없는 밤,
도져오는 응어리 뱉어내도
여윈 잠 속 새벽빛
여전히 흐리기만 하다

죽보에도 없는 내 형제에게

녹슨 가늌쇠를 지나 심장에 꽃힌
차가운 눈빛이 철책에 걸린 험거운 세월을 추슬러
뜨거운 가슴으로 마주할 수 있다면
그깟 반세기 어긋남 쯤이야 춘삼월 눈 녹듯 하찮을 수 있다
그러나 형제여,
막힌 등허리 어느 자락에 단잠처럼 스며들어
등뼈를 누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
성한 발목 묶어놓은 이념의 벽이
한 세월 이어온 핏줄보다 더 강할 수 있으랴
그 어떤 쇠 달걀도 우리의 분노보다 뜨거울 수 있으랴
- 어무이 내 또 올겁니다 살아만 계시소 이
붉은 산언덕에 청송으로 뿌리내린 그날 이후,
순안에서 김포까지 이어진 아픈 절규를 잊지 말게
끈끈한 인연의 끈을 놓지 말게
형제여,
남이니 북이니 따지지 말세
멍울진 가슴 풀어헤치고 오늘은 거나하게 취해보세
죽보에도 없는 내 형제여.

먼저 간 형에게

양력 정월 초이레 지나
오늘은 유난히 바람이 차네.
살을 에는 추위를 느끼면서도
차마 춥다고 입을 열어 말할 수 없네.
아직은 따뜻한 피를 품고 있는 나는
맨몸으로 찬바람 맞고 서 있다 해도
감히 춥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네.
아무 것도 해줄 수 없어 미안하다고
차가운 형의 손을 어루만질 때
뼈만 남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바라보던
형의 깊은 눈에 고인 눈물이 서럽고 아파
애써 참았던 눈물을 들키고 말았네.
시간을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네 형.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준 형.
형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눈을 가려
좋았던 날의 모습이 자꾸 지워지려 하네.
차마 놓을 수 없던 형의 힘없는 손의 가벼운 떨림이
형과 내가 나눈 마지막 인사였음을
형이 내게 들려 준 이별의 말이었음을
감출 수 없던 눈물이 먼저 알았나 보네.
사랑한다던 가족들 눈에 밝혀 어찌 눈을 감았는가.
바람 찬 날,
어깨 걸고 함께 했던 순간순간의 애뜻함
어찌 안고 살아가라고 먼저 세상을 버리고 가는가 형.
형이 고통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
형을 위해 마지막 눈 맞춤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오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 형.

장수 사진을 찍다

1.

금 자라가 섬이 된 금오도에
오랜만에 사람들이 북적댄다.
고개를 넘어오는 아스팔트 길 위 차들이 요란하다.
섬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열린다고
세상 떠날 때 명표로 들고 갈 사진도 찍어주고
동네 꼬맹이들 글짓기 교실이 열린다고
서둘러 회관 앞 공터로 나오라고
스피커 소리가 한껏 들떠있다.
저녁 밥 묵고는
뺨드에 맞춰 가수들 노래랑 명창 소리도 듣고
우리가락에 맞춰 덩실 덩실 춤을 출 수 있다고
언능들 나오라고

동네 점잖은 이장이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니
거시기 양반 칠순 잔치는 암것도 아닌가보다.

2.

빌려 입은 양복이지만 품 나게
뒷짐 지고 동네회관 계단을 올라가는
할아버지 그림자를 잡고
허리 굽은 할머니가 따라 오른다.
풀 먹인 모시 적삼이
팔랑팔랑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다.
젊은 것들이 신방 채려도 되겠다고 놀려대도
세월의 이력이 빗살무늬로 박힌 물골
요리 돌려라 조리 돌려라 숙여라 들어라
장수사진이니 웃어라 활짝 웃어라 해도
꼭 다문 입술은 도무지 웃음을 그리지 못한다.
억지웃음이 얼마나 슬픈 표정인지
주름 깊은 웃음 차마 걸어 두기 싫었던 것인지
오랜 습관의 틀 속에 갇힌
진흙처럼 굳은 표정 위로 번-쩍!
천 분의 일 초 스트로보 불빛이
한 생의 이력을 엑스레이처럼 찍어 낸다.

죽음에게

내 오늘은 자네에게
긴히 할 말이 있네
자네가 쳐 놓은 덧에 걸린
슬픔의 덩어리들이
하나 둘 그 무게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는가
지우지 못한 삶의 깊숙한 흔적들이
보푸라기처럼 돌아
가슴을 찌르는데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고
농담처럼 뱉지 말게
한 생을 갇아먹은 길 위에 서서
한동안 머뭇거리던 시간의
쳐진 어깨 위로 내려앉은
핏빛 노을을 보았는가.
하루의 끝자락에 휘감긴
슬픔의 조각들이
힘없이 부서지는 것을 보았는가.
지워진 길 위에 풀꽃이 다시 피고
무성하게 낮선 시간이 돌아
가뉘 둔 기억들이 벌써 떠나려 하네
아, 사방이 막막하네.

실려 가는 개

늙은 개 한 마리가 짐짝처럼 실려 간다. 철창살 너머 낯익은 풍경들을 남은 목숨으로 지우며 가는 길, 익숙해지지 않는 낯선 풍경들이 침침한 동공에 잠시 맺혔다가 사라진다. 촌촌하게 박혀있는 기억들을 깨끗이 지워내는 일이란 목구멍에 우겨넣은 찬밥처럼 아무런 저항도 없이 삭혀지는 마른 목숨 같은 것. 일곱 배를 낳아 기른 불상 사나운 홀태 젖이 바람에 밀려 슬프게 출렁거린다. 젖을 힘이 없다고 내쫓지 마라. 더 이상 뭘 내주랴 앙상한 뼈대로 간신히 형태를 잡고 선 늙은 목숨을 내주랴. 목구멍이 마르도록 나를 미치게 하는 이 적요가 싫다. 목울대를 넓혀 젖으려해도 입 안에서 빙빙 도는 하고 싶은 말들이 철창에 갇혀 실려 간다.

안다 다 알고 있다 내가 니놈들 뱃속에 들어 찬 똥보다 못한 쓸모없는 늙은 개라는 걸, 그러나 기억해라. 성한 몸을 발라 니놈들 뱃속을 채워주던 한 시절이 있었다는 걸.

희망의 시간

어디에 있니
너무 어두워서 무섭진 않니
아가, 다 젖어서 추우면 어떻게 해
부디 살아만 있으렴
엄마가 간다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여름, 가을 지나 겨울
희망에서 절망으로 가는 길은
그리 멀/지/않/다

아가, 저 소리가 들리니
깊은 어둠 속에서 희망을 굶던 아우성
그 너머로 아득하게 멀어져가는
그동안 너였던 것들과의 이별,
그리고
너와 우리들의 희망이던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소리

아가, 노란 희망의 끈이
수십만 가닥으로 바르르 떨고 있는 이곳은
너의 조국이란 곳이다
희망의 소리는 사라지고
빨 소리만 비대해진 여기는,
너에게 조국을 가르치던 대/한/민/국이다
아가,
너와 함께 너의 조국도 침몰했다
너와 함께 희망의 시간도 죽었다.

쓰러진 고목을 보며

힘없는 고목이 쓰러졌다.
그들이 되어주던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고
그 곳에는 쨍한 햇볕이 다투어 키를 높인다.
쩌렁쩌렁 산울림이 그 자리를 맴돌다 가고
개울물도 돌틈 사이를 신음으로 흐른다.
온 산을 태울 듯한 햇빛만 질어
하늘 향해 고개를 들 수 없는 나는
내 그림자를 포개고 눕는다.
세상을 등지고 누운 고목을 보니
한없이 흔들리던 숲 속의 나무는
다스릴 수 없이 화가 난다.
빈 울음이 다가가
쓰러진 고목의 숨소리를 가만히 만져보니
그 안에서 덜 자란 나무가 걸어 나온다.
어린 날의 고요함이 기어 나오고
방황하던 날의 물빛 푸름이 묻어나오고
억새풀 같은 목마름의 거친 향기가
나무 등걸에서 걸어 나오고.....
숲이 빠져나간 고목은
마침내 꺾데기만 남아
빈 하늘에 걸린 멈춘 시간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다.

한 생이 지다

한 생이 진다는 것은
꽃이 지는 일보다 아픈 일이다.

기억은 아픔이다
아픔이 슬픔을 만든다
두툼하게 껴입은 기억이
쉬 아물지 않을 상처를 만들고
남겨진 흔적마다 아쉬움이
눈물로 맺히기 때문이다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작은 아쉬움이야 없으랴만
쉬 보내지 않으려 붙잡는 마음이
꽃을 지우는 마음만큼
깊고 아프기 때문이다.

여든 다섯 개 촛불을 켜고

동짓달 찬바람만 기웃거리다
문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온기 잃고 쓸쓸해져 서러운 방,
갈다 만 벼루 위에는 먹 문은 세필이
아직도 써야할 이야기가 많다는 듯 따뜻한 온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천 십일 년 시월이 새겨진 생의 모퉁이에서 주저앉은 달력이
빈방의 쓸쓸함을 다독이고
저기 저 빈 자리에서 반가운 기색 애써 감춘 근엄함으로
낮게 웃어줄 것 같아
그리운 이 보낸 그 자리에 앉아
멈춰 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아쉬움과 분노를 잠재우는 나약함 위에
건네지 못한 말들을 방안 흔적들에 버무려 내려놓는다.
대학시절 내 장학증서와 습작들을
애장품 상자에 애지중지 간직하셨던 아버지.
아프게 바람 부는 오늘,
머뭇거리다 끝내 하지 못한 말들이
당신 마지막 생일상에 여든 다섯 개 촛불을 켜다.

풀숲에 누운 새

푸른 공기를 휘감던
깃털에서 빠져 나온 따뜻한 지저귀미
이슬을 덮고 풀숲에 누워있다.
낮게 내려앉은 하늘이
조가를 부르는 유월 아침.
한 생애를 들어 올리던 날개를 접고
쫓아대던 햇살이 반쯤 걸린 부리도,
하늘을 움켜쥐고 힘차게 흔들던
날카로운 발톱의 행적도
뜨겁던 날의 부산한 지저귀미도
이제 웅크린 몸속에 가두고
식은 체온처럼 잊혀 질 것이다.
힘없는 부리 끝에 잠시 머문
투명한 시간을 밀어내고
아침 햇살이 빠져나간다
웅크린 깃 속으로 어두운 그늘이 파고든다.
속절없는 쉬파리 웅성거림이
주위를 맴돌아 사방이 간지럽다.

폐차, 경적을 울린다

이쯤에서 너를 지울 수는 없다. 희미해진 길 위에 멈춰있는 폐차, 남은 온기로 느슨해진 생각들을 조이고 경적을 울린다. 풀풀 바람에 흩날리는 정리되지 않은 삶의 끝단, 재봉되지 않은 젊음이 둘러앉아 한 때 안락을 꿈꾸던 둥근 유리벽을 빠져 나온 웃음소리가 엮어진다. 수시로 분노를 뿜어내던 심장과 검게 그을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숨통, 걸어온 흔적만큼 선명한 시행착오가 이력된 완성되지 않은 그의 삶 위로 서늘해진 시간이 내려앉는다. 요동치던 파도가 시나브로 잔잔해 진다. 소름끼치는 저 푸른 소음. 그리고 적막. 서명된 저것들, 푸줏간 고깃덩이처럼 함부로 잘려나갈 저것들, 먼 길을 달려 와 지쳐 누워있는, 일어서지 않으면 더 이상 불리지 않을 너를 흔들어 깨워 시동을 건다. 몸 안쪽에서 끄르르 벽을 할퀴는 오래된 가래가 들끓고 손톱에 굵힌 혈흔이 싹틔줄처럼 온몸에 번진다. 바람이 불어온다. 파도를 일으켜 세우는 바람, 한동안 잠잠하던 계기판들이 멋대로 요동치다가 일정한 간격의 그래프를 그린다. 남은 기력을 모아 폐차, 경적을 울린다.

죽음의 거리에도 별은 뜨는가

새벽 별이 눈뜰 무렵, 침몰한 죽음의 거리를 횡단하던 강아지, 외마디 비명으로 파란 눈 뜬 신호등 불빛에 번뜩이며 날아오른다. 찢겨진 어둠 조각이 저승사자 망토처럼 덮이고 도시의 밤에 익숙하지 못한 불빛 차가운 거리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눈동자 위로 별이 떨어진다. 차가운 아스팔트에 누워 새벽바람의 조곡을 들으며 전신주 위에 걸린 희망을 끌어당긴다. 차갑게 식은 등짝 아래 어두운 시간이 신음하며 흐르고 새벽 별을 털어내며 네온사인이 구역질나는 오늘 자 신문을 전송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얼굴 없는 사람들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힘없이 끌려가는 겨울밤은 고대의 무덤처럼 깊어가고 부서진 머리 위로 국민의 정부가 내건 달콤한 메시지가 우스웠던 과거 향해 내던진 보도블록 잔해처럼 덮인다.

아스팔트 바닥에 껌처럼 눌러 붙은 강아지 위로 불감증에 걸린 조간신문이 표정 없이 지나가는 새벽 네 시에도 별은 질 줄 모르고.

상황

-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소식을 듣고

삶이 저처럼 가벼운 것을
활활 타오르다 나풀나풀 흐느적거리는
저들의 뉘.
저렇듯 삶이 한순간에 타들어가
말이 지워지고 생각이 지워지고
하루가 지워지고
걸어온 길들이 지워지고
가족들이 친구들이
온기를 나누던 지인들이
하나 둘 하얗게 지워지고
기억에 맺힌 작은 알갱이마저도 지워지고
텅 빈 기억 속에서 잠시 멈춘 상황이
점 하나로 휘발되다.

아직은 떠날 수 없어요, 어머니

- 신호순 . 심미선 죽음에 붙여

어머니!

아직은 소리 내어 울지 말아요

등쪽에 박힌 호곡소리 너무 무거워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세월 흘러 누가 우릴 기억하여 찾거든

길썬에 핀 들꽃 푸른 빛 그 향기로 전해 주세요

사람으로 태어나 구겨진 휴지조각처럼 한 시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떠났노라고.

하지만 어머니!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무리 짓이겨도 뜯기지 않게 만두피 같은 살점 말고

철갑으로 단단한 껍데기를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희랍 신화에 나오는 괴물처럼

뒤통수에도 눈을 붙여주세요

어머니, 지금은 보내지 마세요

아직은 떠날 수 없어요

다하지 못한 이야기 몇 몇 마저 하고 나면

어디든 떠날 수 있겠어요

그때는 편히 눈 감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머니, 아직은 손 놓지마세요.

제 7 부

오래된 편지

젊은 날의 뜨거운 가슴이
시나브로 시들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색해질 무렵
젊은 날의 애절한 오래된 편지는
젊은 날의 기억 속으로
하염없이 걸어 들어가게 한다.

새벽 별빛으로 오는 그대

새벽 정적을 깨고
멀리서 고즈넉한 기적이 운다
누가 어디로 떠나고
어디서 돌아오는 것일까
돌아오는 자보다 떠나는 이가 더 많은
우리들의 시린 새벽은
판도라 상자를 풀어안고 잠들어 있다.
고요를 흔드는 바람이 불자
기력 다한 별 하나가 진다.
아프게 떨어진 저 빈 자리에
어느 누가 또 아프게 별이 될까.
시공의 간극을 넘어 온 그대여
가여운 영혼을 길어 올려
하나 둘 별꽃으로 피는 날,
가난한 내 그리움도 꽃이 되리라
조바심으로 삼은 주단
그대 오시는 길목에 향기로이 펼치리니
오, 그대여, 깊은 시름 밀쳐내고
달그림자 바른 창호문 열어젖히고
부디 내게 오시라.

함께 걸어온 길

흔들리는 만큼 상처가 깊어지는 섬
그 섬과 길 사이를 갈라놓은
어둠을 들추고
오래 젖어있는 손을 잡아보네
언제부터 젖어있었는지 읽어내지 못한다한들
뭐 그리 대수냐고 구차한 삶을 꿰매며
기억의 조각들이 바다로 길을 내네.
함께 걸어온 길은
한 순간,
떠도는 섬처럼 가장 외로울 때 지워질 것이다
가슴을 파고드는
살아온 날의 아픔을 떼어내며
아득히 노을 속 외길을 바라보네.
외길은 외길을 만나 비로소 길이 되는가
함께 걸어온 길을 지우며
떠도는 섬으로 이어진 길을 보네.
애초 내게 섬으로 이어진 길이 있었던가
오래 살아남아
바다로 흘러드는 젖은 길만이
섬을 만날 수 있네.

오래된 편지

장롱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소식을 꺼내다
가슴 밑바닥을 타고 흘러가는
강물 소리를 듣는다
손때 묻은 추억도 가끔은 등을 돌리는
불혹에 서서
묵은 활자 사이로 언뜻 비친
희미한 그리움을 바라보네
한때 아름다운 설렘으로 살아 숨 쉬던
홀로 쓸쓸했을 오래된 편지,
얼마나 흘렀기에 이다지 낮이 설까

그리운 순간들을 갈무리하다보면
세월의 한 모퉁이쯤에
고장 난 시계추 마냥 멈춰 선
신 새벽 푸른 이슬 같은 기억들이
아프게 마음을 적시네.
어둡고 긴 통로를 지나
한 세월을 숨죽여 온
일상의 허허로운 것들이
돌아갈 수 없는 발목을 잡네.

꿈속의 사랑

출입문 좁은 창으로
조간신문이 고개 내밀던 시간에
겨우 잠을 청한다
꿈을 꾸다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내 몸은 공기입자보다도 가볍다
꿈속에 불꽃이 피었다
아름다움으로 달궜진 불구덩이 속에서
분수처럼 퍼져 오르는 불꽃사랑
기억의 톱니바퀴에 물린
결코 떼어내지 못한,
깨어나면 돌아가야 할 사랑
초침 소리로 꿈을 몰아내야하는
가슴 속에 새기지 못하고 지워야 할 사랑,
부풀어 깨지기 전에 스스로 터트려야 할
잠재의식 속에 기생하고 있는 사람아
꿈 속 세상에서 널 보았다.

내 삶을 지탱하는 그리움

생각 없이 눈을 뜨고 생각 없이 잠들 던 날로부터
몇 발자국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
심심하게 밟히는 그림자가 무슨 빛깔로 말을 건네 오는지
잠시라도 귀 기울여 보라.
밟혀서 신음하는 그림자 비명을 따라 들어가 보면
아무도 말 건네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리움의 빛깔로 칠해진 무언의 세상이 거기에 있으리니.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밥은 묵고 다니냐'고
눈빛 고운 여인네에게 무작정 '어디 사느냐'고
마음 풀이며 물어볼 필요도 없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리움이 그리움으로 말하는 곳.
그곳에서 내 생의 절반은 무너지고 절반은 다시 일어서리니
내 삶을 지탱하는 그리움이
어떤 빛깔이냐고 서둘러 묻지 말라.

오래 기억되는 이름을 위하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문득 그리워지는 이름을 위하여
마음 하나쯤 비워두면 좋겠다.
망각의 이끼에 덮여
그대 찾아오는 길 지워지지 않도록
젖은 낙엽을 치워야지
묵은 그리움의 장작불 지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가슴 데워 놓아야지
내일도 모레도 그리움의 꽃이
소리 없이 피었다 진다해도
살아 있는 동안
이름만으로 서로를 기억할 수 있다면
꿈속에선들 포갤 수 있는
반가운 소식 하나 들고 오지 않으랴
햇살무늬 창호 문에 비친
겨울나무 그림자를 고즈넉이 바라보는
서늘한 눈매를 가진 그대를 위해
말갱게 닦은 햇살 한 무더기
빈 자리에 풀꽃처럼 피워 뒀어야지.

연민

지나는 바람에 쉬 뒤집히는
마음 한 자락 두르고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저녁을 먹는다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겨울은 아직 멀어
기다림으로 비대해진 생각이
자꾸 뒤통거린다

거울에 비친 어둠은
별 하나 새기지 못한 하늘이다
건널 수 없는 허공이다
지워진 이력 한 권 남기고
돌아갈 길을 잃은
누군가의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이
사방이 유리벽인 미로에
연속무늬 어둠을 새긴다.

내 마음도 모르는 그대

헤어짐이 만남처럼 반가운 것이라면
눈물은 필요 없겠지요
연기처럼 피어오르다 흩어질 만남이라면
차라리 지나칠 수 있도록 눈이라도 감으세요
오래 전에 결정되어진 이별이라면
가시밭길 맨발로 간데도 하는 수 없겠지요
지금껏 지워지는 사랑만 그려보았습니다만
이젠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을 그리겠습니다
깨끗이 닦아놓은 빠렛트에 물감을 짜고
누군가 그 길 밟고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림 속에 길을 만들고 이정표도 세울 겁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당신은 그 길 밟고 오실까요
마음의 길은 날마다 멀어져만 가는데
아직은 보이지 않아 두렵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아 서럽습니다
행여 그대 지나칠까 늘 두렵고 서럽습니다
내 마음도 모르는 그대여
정녕 그대를 볼 수 없어
이제 그리움마저 지우려 붓을 듭니다.

가슴속에 피는 꽃

1

바람아 너는 모르지
밤새 이슬로 피었다 아침에 지는
달맞이꽃 사연을
그리워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목마름을 너는 모르지

2

잊지 말기로 하자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늘 그대 생각으로
하루가 열리고 저문다는 것을

3

기다림이 있기에
그리움이 있기에
언제나 부푼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대를 볼 수 없는데
밤을 건너온 기다림도 애절한 그리움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4

약속 하지 말아요
지킬 수 없는 마음이라면
미소 짓지 말아요
진실이 아니라면
그대는 아침 햇살이고 나는 저녁노을입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우린 너무 멀리 있는데

5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
아파하지 말아요 우리
돌아보지도 말아요 우리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만 주세요
다가가지도, 아프게 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그리워도 참을 수 있어요
차라리 눈을 감겠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 준다면

6

우리 친구라 했나요
우린 어떤 친구일까요
가장 값진 사랑과 기탄없는 대화와
참된 진실과 오해 없는 이해와
달과 별과 태양을 다 가질 수 있는 친구라 했지요
그런데 우리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7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흔들리고 부서지면 어쩌죠
그대는 흐린 하늘 그믐달이고
나는 담장 밑에 몰래 피었다 지는 달맞이 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임을 느낄 수 있다면
그대 숨겨놓은 마음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8

우리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함께 기뻐할 수 있지만
서로를 모른다는 것은 함께 슬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생각만이라도 열어두어요
그것만으로도
서로를 느끼기에 충분하겠지요.

9

그대는 누구입니까
이토록 밤마다 흔들리게 하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10

항상 멀리 있어도
그대 숨소리 들을 수 있다면
언제나 마음만은 평화롭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 있다는 것을
다행이라 여기며 행복하겠습니다
그늘 속에서 상사화로 날마다 피고 진들
언제나 마음만은 평화롭겠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그대는 담장에 홀로 핀 나팔꽃
나는 그대를 숨죽여 지켜봅니다
행여 내 기척에 놀라
꽃잎 떨어뜨려 얹어
가까이 가지 못하는 조바심
나는 밤새 기다리다 눈멀어
스러지는 별빛
그대 함박웃음으로 피어나도
차마 눈뜰 수 없는 조바심.

그대는 눈 속에 핀 설매화
나는 그대의 부름을 기다립니다
행여 내 기척에 놀라
영영 부르지 않을까 얹어
소리 내지 못하는 부끄럼
나는 겨우내 기다리다 병어리 되어
해매는 메아리
그대 입술에 잔설 녹아 흘러도
차마 부르지 못하는 부끄럼.

아름다운 불륜

가슴 붉게 물들인
가을빛 그리운 것들
병이 되기 전에
활활 태워 재가 되게
내 가슴 심지에
제발 불을 붙여 줘.

함께 건너지 못한 강
사이에 두고
물빛 사랑의 꽃이 피네
불면의 밤 내내
잠 재울 수 없는
바람이 부네.

더 늦기 전에

당신은 부끄러워 그늘에 숨죽여 핀
향기 없는 들꽃입니다
그리워하다 시들어 버릴 이름 없는 꽃입니다
나는 불꽃을 찾아온 실바람입니다
지친 나를 당신은 감싸주지 못하고 시들고 맙니다

당신은 눈물로 내 몸을 적시려 하지만
느낄 수 없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나는 목말라 부서지는 바람입니다
당신은 눈물로 빛은 향기를 내게 주려 하지만
이미 타서 재가 되어버린 나는
눈물 향기마저 담아 둘 수 없습니다

온몸으로 감싸려 해도 이미 흩어진 바람이기에
당신은 나를 안을 수 없습니다
밤과 새벽 사이에 피는 불꽃만이
나를 감싸 안을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아직 모르십니다.

천년의 사랑

가령 시간을 되돌려 시간 여행을 간다면
천 년 전 또는 그보다 더 오래 전
하늘은 하나이나 땅이 갈려
마음대로 마음을 부릴 수 없었던 그 시절
멈춘 시간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쌓다가 만 불룩 같은 천 년 전 사랑이
운주사 돌탑이나 미륵불의 간절함으로
천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
시간은 순간의 깜박임과 같은 것
그 깜박임의 흔적을 찾아 바늘을 되돌려본다
눈 감지 못하고 인연의 강을 건너
낮을 지나 밤으로 가는
천년 세월의 이끼가 덮인 그대 숨소리
간절함으로 깨어나 마음의 줄로 이어져
봄날 아지랑이 가물거림으로 오는가
오래오래 묶어둔 마음의 끈을 풀고
몇 백, 몇 천 년 전의 묵은 그리움이
새 생명의 빛을 받아 발아를 꿈꾼다면
오, 시공의 간극을 넘어
무언의 시간 밑바닥을 타고 흐르는
낮은 심장의 고동 소리로 그대의 안부를 묻노니
부디 오랜 잠에서 깬 마음 빛 머무는 언덕에
무채색으로 노래집을 짓도록 하시게
바람에 밀려나오는 그 노랫소리가
천년을 흘러도 마르지 않는
천상의 강가에 그리움의 꽃을 피우나니
천년을 끈적임으로 기다려 온 인연
세월을 거슬러 흩어진 마음 끌어 모아
개화의 순간을 맞이하리니
그 꽃향기로 은하수에 띄울 천상의 배
밤하늘에 별빛처럼 준비해 볼까.

기다려본 사람은 안다

1

긴 겨울이었다
앓고만 살았던, 버리고만 살았던
상처뿐인 겨울이 있었다
기척도 없이 다가와 쌓이고 쌓인 미련
끝내 다 털어 내고
분주하게 떠날 준비를 하였다

회한의 몸짓으로 버려야만 했던
시간 속에서 오지 않을 사람
무척이나 기다리던
세월처럼 긴 겨울이 내게 남아있었다.

떼어낼수록 아프게 저려오는 기억의 강에
밤마다 눅눅하게 젖어드는 흥건한 그리움
가슴 밑바닥 휘젓고 출렁대며 바빠 흐르는
거친 강물이 되기도 하였다

그 강가 마른 풀 포기로 홀로 남아
햇살 아래 회생하는 명울 안고
서러움 지워가며 기다리던 그 순간에도
떠난 사람 지워내지 못해
허공을 떠도는 그리움으로
표류하는 구름이 되었다

2

볼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서
머무를 수는 있었다

가지려 하지 않았으므로
영원히 가질 수 있었는지 모른다
먼 곳에 있어도, 깊고 깊은 잠 속에 누워 있어도
부르면 달음질로 다가와
내 안 가득 채워지는 사랑.

사랑은 새벽이슬로
풀잎에 맺혀 있다가

도랑 타고 흐르다 개울 이루고
샛강 지나 큰 강에 합류되어
바다에 닿을 지라도
끝남 없이 함께 하였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커질수록
보고픔이 아픔으로 변해갈수록
내 안의 사람은 더 큰 그리움으로
나와 하나가 되었다

3

기다려 본 사람은 안다
작은 기척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입술이 탄다는 것을,
바람 소리에도 눈뜨고
발자국 소리에도 고개 돌려보는
순간의 초조함을
기다려 본 사람만이 안다

작은 기척에도
사랑이 묻어오고
스치는 바람소리에도
꿈길 밟고 오는 발자국 소리에도
나의 사랑은 숨어 있었다

사랑을 찾기 위해
떠남을 선택하였다
방향을 지우고 만남을 위해
떠나야 했다
잔인한 겨울은
숨길 것도 가릴 것도 없는 벗은 몸으로
이별 뒤의 기다림을 남기고 있었다.

4

이 한 철, 또 다시 사랑 꿈꾸며
기다림을 인내하고 있다
같이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기다림 뒤 물고 올 허무함 알면서도
이렇게 가슴 드러내놓고
기다리고 있음을 어찌할 수 없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떠올리다 지운다는 것은
몰래 또 다시 조각해 본다는 것은
소유를 위함도 아니고
만남을 위한 것도 아니다
다만 무소유 무작위 몸짓일 뿐이다

가슴이 비어있지 않음을,
어느 누구도 떠남조차 없었음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
만남과 헤어짐을, 비어있음과 채워짐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없다

떠난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기 위함이다
돌이켜 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놓고
한번쯤 떠올리며 산다는 것은
신기루처럼 떠있는 아름다운 즐거움이다

5

겨울을 털고 일어선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꽃샘추위에 작게 웅크리고
겸허한 마음의 눈 뜬 겨울바람에
목메던 그리움 날려 보낸다

바람에 노출 된 가슴이 떠난다
그 바람에 철저히 외로웠다
이 겨울 끝 물고 분명 봄이 올 것이다
산철쭉 붉게 물들고
개나리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그 언덕, 그 꽃숲이 그립다

계절이 어김없이 바뀐다는 것은
새로운 기다림을 맞기 위함이다
겨울이 간다한들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듯
내가 누군가를 보내지 않았다면
내 사랑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다
보낸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다

덤으로 사는 세상

1

새처럼 노래 부르던 기억 속 사람이
신문에 죽어있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새가 되었을까요
내가 죽으면 것처럼 새가 될까요
한 평도 못되는 관 속,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지요
우리가 부르면 예수처럼 그도 돌아올까요
연습으로 죽어 볼 수만 있다면
딱 한번, 딱 한번만이라도 그래 보고 싶습니다

2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 어둠을 열고 꿈속으로 걸어 들어 왔습니다
분명 그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소리 높여 불러도 그는 되돌아갑니다.
이쪽과 저쪽은 너무도 다른 세상
내 목소리 들려줄 수 없듯이
그의 소리 들을 수 없는
멀고도 아득한 거리입니다
이별은 그 거리를
넘어서 오는 것일까요

3

내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덤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지우면
새로운 날들로 채워질까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 것을.
순응하며 살아라 세상을 역행하면 안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무엇이 순응이고 무엇이 역행입니까

4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생각이 좁아집니다

금단증세
오늘 아침, 내가 맛 본 증상입니다
갈증으로 목이 아픕니다
오래 건딘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이제 살 것 같다고
낮게 소리 질렀습니다

5
겨울인데도 춥지 않습니다
왜 겨울인데 춥지 않지요
말세가 와서 그런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언처럼 말합니다
지구의 종말은 정말 오는 것일까요
문득 그 종말이 보고 싶어집니다

6
자유롭고 싶습니다
구속도 싫고 어디에 속한다는 것은 더욱 싫습니다
혼자가 좋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만이라도 자유롭습니다
어떤 말들도 위안이 되질 못합니다
가슴은 더욱 더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일까요
가면을 쓰고 살기는 싫습니다
가면을 벗어 던지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이별의 쓴 입맞춤 뿐,
다른 기억은 없습니다

7
다시 태어나도 인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련이 너무 많아 다시 태어나도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는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인간의 탈을 쓴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보게 저승 갈 때 무얼 가지고 가려나'
가진 것 없는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홀로 부서지는 노래

-사랑노래 1

새벽빛에 현상되는
미진한 아침은
취한 상태로 발기했다

활처럼 흰 등뼈 아래
밤새 작아진 얼굴을 묻고
허물을 벗는 아침,
불감증에 걸린 허상을 빛는다

끝내 부르지 못해
뿌리째 흔들리며
홀로 부서지는 사랑노래

꿈 속 후벼 파던
가시바람 속 그대여
기다림에 지친 벽시계
태엽 풀리는 소리 들리는가.

안을 수 없는 사랑

-사랑노래 2

눈을 감아야
더 또렷해지는 그대
그대는 꿈길 밟고
물 흐르듯 내게로 옵니다

눈을 뜨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대
물 위의 기름처럼
함께 있어도 안을 수 없는 사랑,

눈을 감아야
더 자유로운 만남이라면
어둠 속 가시 같은 곳간도
두렵지 않겠습니다

내 사랑은 마르지 않는
어둠을 덮고 누워
기척 없이 흘리는
눈물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편지

-사랑노래 3

내 안의 눅눅한 것들 다 비워내고
잘게 부순 속살 꺼내
건망증에 걸린 심표 없는 편지를 쓴다
버리지 못해 녹슨 사슬에 묶인
용서받지 못한 사랑 마지막으로 지우고
말줄임표 하나,
주소 없는 봉투에 넣어 풀칠을 한다

다시 살아나는 기억의 알갱이들
잘근잘근 깨물어 삼키려해도
입 안 가득 채워지는 못 다한 말의 찌꺼기들
오늘도 바람에 씻어 보내는 우체부 가방 속 내 사랑아
부디 용서해 다오
그대 마음의 번지를 잃어
마음 젖어 빌어 보는 마지막 용서.

그리움

-사랑노래 4

어둠 깔고 누운
세월을 일궈
그대에게 못 다한
말의 씨앗을 뿌린다

청대 숲을 지키려다
물매 맞은 사랑,
핏줄 타고 흐르는 거품 토해내도
해독되지 않을 지독한 속앓이

공기보다 가벼운
실성한 그리움은
낡은 모래성

어둠이 벽으로 자라면
오지랖에 감춰둔
허허로운 욕망이 아프다

이별

-사랑노래 5

꽃향기 줍는 정한의 물방울
가슴 가득 채운 비애처럼
삭힐 수 없는 차오르는 아픔입니다

메마른 가슴 속 가시 같은 기억은
번뜩이며 낙조로 흘러
해뜨기 전의 기도를 갈무리하지 못합니다

설움이 비집고 선 빈 자리,
사랑이 마르면 인생도 말라
빈 가슴 휘젓는 이승의 인연

사랑 비워낸 가슴에
넋마자락 같은 그리움이 쌓이고
가슴 깊이 묻어둔 몇 자락 추억을 녹입니다

절망 가득한 불면의 밤
주인 잃은 조각난 영상만이
성큼 눈가에 닿습니다.

제 8 부

오래 벗어둔 신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따뜻함과 차가움이 공존한다.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순간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가슴 아픈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소외

그의 눈에 갇혀있던 세상이 닫힌다
한 때 중심이었던 것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 기억할 수 없는
현기증 나도록 눈부신 세상 어디에도
낮익은 것들은 없다
어느 후미진 곳이라도
껍데기뿐인 이름 석 자
폼나게 걸어 둘 수 있다면
지친 몸 쉴 집하나 짓고 싶다

햇살 따사로운 날이면
쇠잔한 팔뚝 힘줄 밀어 올려
땀비꽃을 피우고
어두운 기억들을 하얗게 날려줄 수 있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새 집을 짓고 싶다
소유란 가진 자들의 거드름
무더진 시간의 날을 갈아 구덩이를 파고
거드름 위에 영원히 젖지 않을 집을 짓고 싶다
오랜 잠 속에 누워 굶은 허리 펴고 싶다.

꽃을 피우지 못한 풀

아무짝에도 쓰일 곳 없는
저 풀들을 그냥 잡풀이라 하자
바람 없이도 스스로 쓰러지는
저 무서운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거센 바람에 맞서
당당히 일어서는 힘을 키우라 가르치는 일이
공염불로 돌아와 가슴에 박힐 때
불이 꺼진 창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해갈되지 않는 기다림을 만난다
스스로 절망하는 풀들도
뺨뺨이 고개를 들고 일어설 힘이
어딘가 남아있을만도 한데
희미한 미등도 보이지 않는다
오랜 습관이 울을 치고 가뒤편은 탓일까
울안에 갇혀 이미 꿈이 말라비틀어져
애써 잠으로 감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값진 시간을 값아먹는데
송곳니마저 다 닳게 하고 있는
저것들을 그냥 잡풀이라 하자
꽃을 피우지 못한 저 풀들을
그냥 잡풀이라 하는
어설픈 내 인내가 아프다.

죽음의 거리에도 별은 뜨는가

새벽 별이 눈뜰 무렵, 침몰한 죽음의 거리를 횡단하던 강아지, 외마디 비명으로 파란 눈 뜬 신호등 불빛에 번뜩이며 날아오른다. 찢겨진 어둠 조각이 저승사자 망토처럼 덮이고 도시의 밤에 익숙하지 못한 불빛 차가운 거리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눈동자 위로 별이 떨어진다. 차가운 아스팔트에 누워 새벽바람의 조곡을 들으며 전신주 위에 걸린 희망을 끌어당긴다. 차갑게 식은 등짝 아래 어두운 시간이 신음하며 흐르고 새벽 별을 털어내며 네온사인이 구역질나는 오늘 자 신문을 전송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얼굴 없는 사람들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힘없이 끌려가는 겨울밤은 고대의 무덤처럼 깊어가고 부서진 머리 위로 국민의 정부가 내건 달콤한 메시지가 우스웠던 과거 향해 내던진 보도블록 잔해처럼 덮인다.

아스팔트 바닥에 껌처럼 눌러 붙은 강아지 위로 불감증에 걸린 조간신문이 표정 없이 지나가는 새벽 네 시에도 별은 질 줄 모르고.

밤과 낮의 경계에서

너는 세상 밖 미명으로
태고의 숨결 길어 올려
온갖 물상에 이름을 빚는다
하여, 서늘한 입김으로
흐르지 못한 어둠이 흐르는 밝음에게
길을 내어주는 밤과 낮의 경계에서
나는 또 한 차례 열병을 앓는다.
하나 될 수 없었던 만남과 하나 된 만남이
서로 다른 삶을 지고 와
먼 곳의 인정들을 풀어놓자
나는 녹슨 빗장을 열고
혈령한 하루를 꺼내 입어본다
아무도 어둠을 어둠이라 말하지 못하는
밤과 낮의 경계에서.

그해 겨울

그의 어깨는 짓누르던 삶이 빠져나간 부피만큼 혈렁하다. 일회용 종이컵에서 떠나버린 따듯함처럼, 더 이상 돌아갈 길을 기억하지 못하는 페타이어처럼 소모된 그의 유능함, 언제나 유능함은 그가 얻기 위한 빵 한 조각의 어둡고 침침한 기억을 지니고 있었던 것인가. 혈렁한 시간으로 포장된 하루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부질없는 내장의 허기를 끌어당긴다. 그의 유능함은 외투 속 식은 공기처럼 그가 벗어 던진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웅웅거린다. 빵 한 조각으로도 넉넉할 세상을 줍기 위해 일용 근로자 대기소로 향하는 그의 하루는 밖으로 뻗지 못하고 자꾸만 안으로 휘어져 시간보다 빨리 어두워진다.

오래 벗어둔 신발

한 쪽 옆구리 무너진 생경한 일상이 퍼질러 앉은 늦은 오후,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끌며 세상 안쪽과 바깥쪽이 나란히 걸어 들어온다. 쓰디쓴 물이 빠지면 단물이 우러날 거라고 어둑한 불빛에 축축한 하루를 꺼내 말리며 세상을 질경질경 씹던 어두운 얼굴 위에서 발끝에 매달린 길들이 아무렇게나 구겨진다. 구겨진 길 위로 따듯한 불빛이 시나브로 빠져나가 수채 구멍마다 파랗게 그리움의 때가 끼고 나는 겨울 들판 마음 고픈 허수아비 눈빛으로 마음의 변두리를 떠돌다 지쳐 돌아온 신발에 낀 먼지를 본다.

자꾸만 헛딛는 길 위에서
잠시 비켜 서있는 것이라고
나를 따라온 그림자가
오래 벗어 둔 신발에 쌓인 먼지를 털며
차가운 웃음을 던진다.

부패된 잠에서의 이탈

- 살아있는 것들은 잠 속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다

그는 밤마다 은밀하게 구멍을 판다. 사정거리 안에서 정조준 당하는 그의 잠, 무게 중심으로부터 이탈한 궤도 어디선가 허무를 끌고 기웃거리는 푸른 잠들이 그가 파놓은 구멍에 서로 다른 이름을 덧칠하려 하지만 유년의 카트리지에서 현상되지 않은 작은 입자의 기억과 어둡고 침침한 욕망을 다 칠할 수는 없다. 두터운 절망으로 장식된 두건을 쓴 죽은 시간과 간혹, 미처 여물지 않은 허정한 시간이 그의 잠 속으로 흘러들어 침잠한다. 증발되지 못한 어둠과 얼굴없는 표정이 그를 바라본다. 그는 갈비뼈 하나를 뽑아 두려움이 새겨진 어둠을 각인한다. 머리를 만들고 몸을 만들고 팔과 다리를 만들고 느지막이 햇살이 열리는 창살 없는 창문을 만든다.

그의 시간이 부패된 잠에서 이탈한다.

세기말의 일기

젖은 구두를 벗어두고
비틀거리며 지나온 지루한 시간들이
열사흘 달을 품고
사각 창틀 모서리에 걸려있다
밤새 달빛에도 발아되지 못한
서류봉투 속 무능함이 분리 수거되어
퇴출의 명표를 달고 쓰레기차를 기다리는 아침,
그대 없는 식탁에서 일기를 쓴다
쓸쓸함이란 이런 것인가
창백한 내장을 부풀리는 질기디 질긴 삶의 허기,
나는 따뜻함이 빠져나간
딱딱한 밥그릇에 이빨 자국을 내다 말고
담배 연기로 마른 입술을 닦는다
비대해진 삶의 무게에
나는 구멍 난 지구처럼 위태로웠다
뼈 속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리고
상승하지 못한 꿈 조각들이
세기말을 기어오르다 미끄러진다
낮은 곳은 안전한가
정말 그런가.

귀향

혀가 굳어 더 이상 입 밖으로 밀어내지 못한 말들을 머금고 불혹의 사내는 초점 잃은 눈으로 골 깊은 어미의 눈을 끌어당긴다. 잔뼈 굵은 고향 황토 흙 가슴에 얹으려 서러운 타향살이 떼어두고 빈손으로 찾아온 고향, 사약 같은 술 목구멍에 털어 넣고 오랜만에 사지 뻗고 누워 실려 온 응급실, 남은 목숨 같은 링거 주사액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취조하듯 묻는 젊은 의사의 질문에 마지막 남은 생명줄을 잡고 흐릿해진 정신을 깨워 병역(病歷)이 얼룩진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 가보네. 목구멍을 할퀴는 눈물과 버무려 먹은 찬밥처럼 삭아버릴 구차한 삶이 예리하게 날을 세우고 멎든 가슴을 도려낸다. 카운트다운의 끝으로 끌려 들어가는 삶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늙은 어미의 절박함을 떼어내고 사내의 젖은 눈이 링거주사액 속으로 빨려 들어가네.

그날 이후, 벌써 일 년

이천팔년오월칠일 오후 한시 조금 지난 시간, 검은 그림자가 나와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폭풍처럼 지나갔다. 차 안의 풍경은 적막했다. 몇 몇은 간밤의 설친 잠에 졸고 있었고, 더러는 산행 탓에 곤한 잠에 취해 있었다. 나 또한 그 풍경 중 하나였으므로 사고의 순간을 기억하지 못했으리라. 이미 휘발된 기억인지 모른다. 운명의 순간 엉킨 실타래처럼 뒤죽박죽 모든 것들이 얹히고 설켜.....이후,내 생각 위로 몇 번의 어둠이 겹겹이 쌓였다. 일간지 뉴스 같은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고 남의 일처럼 엄청난 일들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거나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이후, 내 기억은
끊긴 필름처럼 부재하거나 불투명해져
분간할 수 없는 시간 속으로
한없이 빠져들어 간다.
이 세상에서 다시 눈 뜨고 깨어나
숨 쉴 수 있게 된 나는
죄인처럼 살아있어도 개운하지 않다.

죽지 않음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
몇 번이고 되물어야 했던 일 년의 세월.
보이지 않은 것들과의 빈번한 타협,
견딜 수 없는 그리운 고통,

아픈 기억은 강물처럼
시간 속에서 서서히 흐르는 것,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
아픈 상처에 새 살이 돌아나듯
어둠을 밀어내는 밝음이 그러하듯
옹이로 깊숙이 박혀 있다가
어느 순간,
새 날, 새 빛깔로 조금씩 엮어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새삼스럽게 잊히는 것을 두려워하기로 한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초혼 재혼 장애인 환영! 광고용 플래카드를 보다
<절대 도망가지 않음>
이 말에서 나는 한동안 숨통이 막히다.

노티웃히엔, 레응옥투이, 리슈옹반, 응우웬티하우, 레티미웁.....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레 불러보는 낯선 이름들.
제대로 부르고 있는지 어떤 것이 성이고 이름인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더듬거리며 읽는다.
매주 두 번 문을 여는 순천외국인한글학교,
어린 신부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화살촉처럼 박히는
기억 나온 디귤....., 가/나/다/라/마/바/사.....
소통되지 않는 일방통행.
언어보다 손짓 발짓 몸짓이 더 요긴한 시간,
초등학교 1학년 읽기 교과서를 펴들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하여 '가 -가 - 거 - 겨.....,'
아버지 같은 서방님 품속에서도 '나 냐 너 녀.....,'
두고 온 가족이 자꾸 아른거려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도
소리 높여 '다 닐 더 더...'

<절대 도망가지 않음>을 위하여
잡초처럼 뽑히지 않으려고 당당하게 내뱉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와 생선의 데칼코마니

나는 고딩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고등어, 갈치는 생선이다
16세기 르네상스시대 다빈치는
자신의 기록물을 거울문자로 기록했다

시월이 붉게 물들어 갈 즈음
옷장 국밥집 골목,
비릿함이 슬슬 기어오르는 魚物塵을 지나다
진열대에 반듯하게 줄을 서서 누워있는
고등어와 갈치를 본다
무심한 가을 하늘빛이 내려앉아
더욱 시퍼런 비늘에 비친 세상,
세상이 온통 뒤집혀 보인다
팽목항 세월호가 뒤집히고
철책 경계병의 눈이 뒤집히고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철망이 뒤집히고
세상 속 나도 따라서 뒤집힌다
순간, 선생인 내가 생선이 된다

고등어, 갈치는 생선이다
생선의 데칼코마니는 선생이다
나는 생선, 아니 선생이다
고딩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늦은 오후 시장에서

우리가 사는 공간에는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온갖 것들이 바쁘거나 느긋하게
제 빛깔로 꿈틀꿈틀 살아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부터 흔하디흔한 것까지
제각각 우주 질서에 따라 세상을 시간과 공간으로
차곡차곡 채워가는 것이다.

긴 그림자를 끌고 하루해가 질 무렵 시장을 찾았다.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짐을 정리하는 사람들,
마지막 손님을 기다리는 생선장수 아주머니와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러 온 아낙의
팽팽한 긴장의 당김이 그런대로 자리를 잡아갈 무렵
그들에 감춰진 사람들의 아쉬운 마음들이
서둘러 지나쳐가는 자동차의 크고 작은 소음에 쓸려간다.
제멋대로 쌓아놓은 나무상자 탑 위에서
하루 동안 데워진 따뜻함으로
일상의 서늘함을 지우고 있는 반짝이는 고양이의 느긋한 눈
그 눈 속에 들어가 있는 풍경의 조각들이
내세울 것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더디고 느린 걸음 위로
내려앉은 어둠처럼 하루는 모든 것들과 함께
한가로이 저무는 것이다.

밤, 외출

가뒤편은 마음을 꺼내 술에 담근다.
적당히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 박동 소리가 굵어지면
내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사람이 사는 마을에 내걸린 불빛을 따라 들어가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내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려는 무모함을 위해 술을 마신다.
낮선 이들의 눈 속으로 아직까지 사람일지도 모를 내가 들어가고
그들의 입술이 빗어놓은 칼에 사람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려나간다.
잘린 마음이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거나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물어뜯어 상처를 낸다.

바람이 분다
사람들이 켜놓은 불이 꺼진다.
어둠이 목을 조른다.
이제, 오랫동안 꺼놓은 내 안의 불을 켤 시간,
사람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사람이 되고 싶은 등불이 걸린다.

서울 기억

- 왕십리 따따불

종로는 그대로 였다
아무리 마셔도
바꿀 수 없었다
웅크린 딸아이 손끝에 매달린
서울은 차갑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어색한 밤빛이 따라 붙었다

목구멍에 술 담고
택시를 세운다는 것
젖은 기억이 시소를 탄다
요동치는 네온 불빛
물구나무 선 밤거리에
의식은 낯설음으로 깨어나
서울의 밤을 비틀거린다

아스팔트 위 낮게 포복하는
왕십리! 왕십리!
왕십리 따불!
왕십리 따따불!
하늘이 닫힌 서울에서는
따불이 회색빛으로
당당하게 버티고 있었다.

서울역 지하도 노숙자

서울역 지하도 구겨진 삶들이
갈겨 싼 개똥처럼 여기저기 눌러 붙어 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소리를 밟고
하얗게 지워진 기억 위로 지나가고
청량리행 마지막 기차가 들어온다고
한 발짝 물러서서 기다리라고 뺨이 뺨이 경고음이 울린다
벼랑 위로 내몰려 간신히 버티고 서있는데
어디로 물러나 무엇을 기다리라는 말인가
그들을 기다리는 어두움이 호각소리로 다가온다
아무에게도 들키기 싫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잠시 다독일 수 있는 어두움마저도 빼앗긴 그들은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다
몸쓸 병에 걸려 버려진 짐승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그들의 험한 눈에 비친 어지러운 세상,
그 세상에 굶린 상처들이 나무껍질처럼 남은 목숨을 감싸고 있다
한 때 저 뜨거운 핏줄 불거진 손으로
그들의 세상을 등글게 다듬었으리라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토큰을 사고
조바심으로 노선버스를 기다렸을 것이다
따뜻한 불이 새어 나오는 골목길 대폿집에서
막걸리 한 사발로 고단함을 씻고 붕어빵 봉지 밤하늘에 흔들며
고래고래 호령하듯 대문을 들어섰을 것이다.
한 때는 한 때는.....

세상을 덮는 개썩갓처럼

어느 계절이든 바람은
들판을 가로질러 간다.
이마가 맑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건
세상을 밟고 선 뒷짐 진 사람이건
바람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맡기고
먹빛 구름 한 올 한 올 풀어
부끄러운 상처 덮어야 한다.
사시사철 꽃을 피우는 개썩갓의
힘줄 터지는 고통스런 개화의 순간을
어찌 아름답다고만 할 수 있으랴.
바람에 밀려 드러눕는
잡풀들의 저 간절한 목마름을 위하여
지나쳐 온 부끄러운 흔적들을 지우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 덮을 때까지 꽃을 피우려 한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을 새 생명으로 피어나도록
우리는 시시포스의 형벌을 끌어안아야 한다.

어느 소인증 환자의 노래

그는 자기 키만 한 기타를 안고 목을 갈라 노래를 부른다. 기타 현이 화면 가득 울부짖는다*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그의 노래는 그가 살아온 날들만큼 어둡고 절박하다 손톱에 긁히는 여섯 가닥 현이 팽팽한 긴장을 풀고 늘어진다. 낮게 흐느끼는 그의 어깨 위로 빗줄기 하나가 화살처럼 박히고 등 돌린 사람들의 그림자가 오버랩 된다. 세상의 울타리로 선 어머니 눈물로 닦인 그의 노래가 저녁 강물로 흐르는 '사랑을 위하여' 노랫말.

* 김중환의 '사랑을 위하여' 노랫말 중

요즘 세상

산다는 것은 적당히 타협하며
눈치에 익숙해져야 한다네.
신이 인간에게 두개의 눈을 준 것은
편견을 갖지 말고 살라는 것이었네.
비틀거리지 말라는 것이었네.
적당한 때 대박을 치려면
두 얼굴을 가져야 하네
고개를 디밀고 손 지문 다 닳도록 비벼야
살아남을 수 있다네
튼튼하고 굵은 동아줄을 잡아야
출세 할 수 있고 사람대접 받는다네.
주민등록증 갱신한답시고
지문을 선명하게 잘도 그려낸 내 손은
요즘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퇴물이라
늘 찬밥이라네.
얼굴없는 아빠, 능력 없는 남편으로 살아간다네
지지리도 못난 놈이라
힘겨루기 세상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늘 뒷북만 친다네
제 밥도 챙겨먹지 못하는 등신이 사는 세상에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새벽이 오고 아침이 찾아오는
겉으로 보기엔 지극히 평범한 세상이라네.

탑골 공원에서

삼일문 창살 너머
비상하던 그날의 울림 녹슬어
봄 햇살 서러운 고목들,
늘어진 가지로 둘러앉아
고층빌딩 그림자 밟고
흘어진 시간을 좁는다

만세 만세 만세
그날의 팔각정 지붕 위로
비둘기 날아오르면
주름진 이마마다
목련꽃잎 소복처럼 내려앉는다

그날의 함성 매달린
*공손수 움트는 가지마다
논노그룹 고별전 80% 세일
플랜카드 휘어 감기고
관리인은 부랑인 먹살에
그날의 일본 순경처럼
차갑게 호각을 불어댄다.

세상의 표적이 된다는 것

세상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아니 고마운 일이다
내가 누군가의 표적이 되어보면 안다
그처럼 뜨겁게 나를 지탱할 힘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기에
누군가의 온 마음을
온 정신으로 바꿔
온 몸으로 받아내는 일은 뜨거운 것이다
뜨겁다는 것은 차가움을 덮는
어쩌면 뜨겁게 달궜진 심장으로
차갑게 식은 세상을 덮는 힘이다
내가 누군가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아직은 세상이 멈춤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뜨겁게 버텨내는
불씨가 되는 일이다
발가락 하나를 잃고
식은 가슴으로 세상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아픈 상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새 천년 새벽별을 노래하다

문득 돌아다보면
내가 흘린 발자국들이
가릴 것도 없이 바람을 탄다
해를 넘긴 아쉬움 비집고
귀통이로 무너져 내린 바라던 마음들이
아프게 저려 온다
잃어버린 시간들, 쏟아지는 아픔들이
오늘은 내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무거운 20세기 마지막 밤을
새 천년의 아침으로 실어 나르던
새벽별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새 천년 새 아침에는
찌든 마음 비워내고
새벽별을 담아두었으면.

오월, 그 날이 다시 오면

-무등산 아리랑 1

화려한 핏빛 시나리오 차갑게
금남로 끌어안고 파스텔 톤으로 떨고 있는
안개구름 걸린 무등산,
거리거리마다 묵은 억눌림 꽃으로 피어나던 날
하늘 땅 설 곳 없이 젖어 울던 가슴 가슴들
피로 얼룩진 하늘 닫히던 그날,
빛이 그리워 어둠이 죽음보다 더 싫어
뚫린 가슴 움켜쥐고 무등산을 부르며 부르며
맨몸으로 금남로에 쓰러져 눕던 그날,
무등산아 너는 보았지
마른 가슴에 강으로 흐르던 절규를

스스로 뿌리내릴 때까지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함께 가자고
억눌린 가슴 으스스하도록 끌어안았다
묻어들수록 짙어지는 쌓이고 쌓인 울분,
지워내고 어루만진다 해도 가슴에 남는 오월의 앙금
눈감지 못한 오월은 어둠 속에서도
골짜기마다 붉게 피어나는데
무등산아 너는 아는지
꽃이 핀다해도 하나도 반갑지 않음을

세상이 몇 번 바뀌어도
가신 임 부릅뜬 눈 감겨주지 못해
떠돌다 돌아와 눕고 또 일어서는 오월
그날이 오면 그날이 다시 오면,
구천을 헤매도 무등에서 살리라던
속으로 속으로만 삭힐 수 없어
목을 갈라 쏟아내던 그날의 함성
아, 오월 그날이 오면, 그날이 다시 오면
무등산아 너는 어쩔래
시린 가슴에 움트는 설움을

운동화 한 짝

- 무등산 아리랑 2

그 날 그 곳에서는
매운바람이 억눌린 가슴 가르며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불었다
스스로 깃발이기 원했던 오월
귀 막고 눈감아 병어리 된 채
죽음으로 지켜온 무등산,

그날의 함성과 울분
허리 잘린 무등에 뿌리 내려
죽은 가지에도 꽃을 피우는데
어디에 묻어야 하나
납덩이와 맞바꾼
핏빛 운동화 한 짝.

장군의 꿈

- 무등산 아리랑 3

내 어릴 적 꿈은 철갑 옷 입고 긴 칼 옆에 찬 이순신 장군이 되는 거였다. 병어리로 살아야 했던 그 시절, 우리는 서로 장군이 되기 위해 바가지 땀비마다 땀을 새기고 주먹을 낸 놈들은 가위를 낸 놈들을 골라 총칼로 죽이는 연습을 했다 잡음 심한 라디오에서 무장공비는 심심찮게 거액의 몸값으로 환산되고 우리는 때마다 사이렌 소리에 방공호로 숨어들었다 가랑이 사이로 올려다 본 하늘에 성난 독수리 광음 끌고 무리 지어 날다 산등성이에 꽃히곤 하였다

부동자세로 보초서는 이순신 장군 머리 위 하늘 받쳐 든 교정국기봉에 잘린 태극 안고 매달린 위태로운 건곤이감(乾坤離坎), 그 아래 둘러앉은 우리는 거짓마저도 속이기 위해 바른 생활 책을 소리 내어 읽으며 연필심 다 닳도록 공책마다 장군의 꿈을 새겨야 했다

구멍가게 할멈

- 무등산 아리랑 4

혈린 집 사이 고샅길, 홀로 쓸쓸한 구멍가게 창에 불이 꺼지면 떠돌이 바람이 몰래 들어와 숨죽여 눕고 하얗게 죽은 시간이 깨진 유리창 안을 기웃거린다. 다 닳은 씨레기 국물에 녹슨 목숨 행구고 습관처럼 빈 하늘을 보는 할멈, 목숨처럼 간직해 온 낡은 사진액자에 그날의 함성과 총소리 지층처럼 쌓여 주름진 입으로 후 후 불면 하나 남은 이빨까지 불려 나올 것 같다. 꽃잎으로 떨어진 자식 저기 저쪽에 있을 거라고, 박제된 시간이 깨어나기 전에는 구멍가게를 떠날 수 없을 거라고 벌겅게 달아오른 한을 뱉어내다 이끼 오른 손으로 가슴을 쥐어짜면 참았던 설움이 베어 나올 것 같아 속으로 속으로만 우는 구멍가게 할멈.

20090523

우리는 이날을 기억하리라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후려치는가
아 아, 하늘 빗마저 막막하게 저물어
앞 뒤 분간할 수 없는 시간들이
갈피 잃은 정신을 밟고 단말마의 비명으로 다가온다
갈갈이 찢어진 하늘 아래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멍한 정신으로
또 며칠을 보내고 나면
먹구름 걷힌 깊은 하늘 볼 수 있을까
어둠에 빛을 매달던 임의 흔적마다
거침없이 깨어나고 일어나 다시 요동 칠 빛의 씨앗
온 마음으로 거두어 가슴 깊이 담아두련다
어둠 밀어내고 다시 찾아 올 아침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양은 다시 떠올라
우리들의 부끄러운 정수리를 조롱하듯 비출 것이다

제 9 부

죽비소리

시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따뜻한 시선을
필요로 하며
그 대상에 대하여
자기만의 언어로 그려보는
이미지 이다.

물방울

얼마나 작아져야
너에게 닿을 수 있을까
세상 어두운 길을 닦아
너에게 갈 수 있다면
속살까지 스며들어
함께 젖을 수 있을 텐데
너에게 가는 길은
내 질량을 감당할 만큼의 거리
아침 햇살에 밤새 부풀어 오른 몸
한껏 웅크린다.

바다

출렁거리는 만삭의 몸으로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비워내지 못한 마음만 자꾸 물으로 기울어
잘게 부서지는 고통 얼마큼 견뎌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길이 보일까
이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몸의 반쪽은 움푹한 곳을 향해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하늘로 가지 못한 것끼리 어깨를 맞대고
온몸으로 짜내는 눈물이 아프게 흘러
바다는 그토록 제 몸을 비틀며
깊은 신음으로 흐르던가.

사진에 대하여

노을을 닮은 사내가 하루 끝 풍경을 등에 지고 선 사람들의 시간을 죽이기 위해 정조준 사격을 한다. 실루엣으로 서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한 것처럼 소란을 멈추고 순간 엄숙하고 조용하다. 하나, 둘, 셋. 순간 저격당한 그들의 시간이 평면으로 펴지고 끝내 주검이 된다. 한 생이 죽음으로 환원되는 과정은 한 순간의 깜박임 같은 것, 더 이상 움직임이 필요치 않는 죽음의 정적에 이르는 거룩한 의식이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현재의 순간을 과거로 바꿔놓는, 시간을 죽이는 일이다. 살아있음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의 시간을 내일로 전송하기 위해 기록하는 일이고 죽음의 빛깔을 미리 맛보는 일이다. 멈춘 시간의 궤적을 말끔히 지우고 과거의 흔적을 현재에 붙잡아 두려는 것이다.

녹

만개한 꽃 이파리
붉은 입술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구릿빛으로 달궜진 생이
시나브로 지나가는 한나절,
그 윤곽이 터널을 벗어나
빛에 노출되는 첫 순간처럼
상처의 흔적은 강건하다.

미모사

옷깃 흔들어 어둠을 털고
아침을 일으켜 세우는
저 부지런함이 궁금하다.
함부로 내뱉지 않는
생각 주머니 주렁주렁 매달고
꿈을 꾸는 너,
속마음 들추고 입김으로 건드리면
화들짝 놀라 제 몸 속에 몸을 감추는
시골 처녀 같은 미모사.

별

투명한 살갗 뚫고 터지는
부드럽게
또는 날카롭게 흔들리는
저 바람기 좀 봐
새벽마다 깨어있는 눈들과 내통하고
아침이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저 별 별 별 별무리
무수히 내리꽂히는 빛 화살
그 불안한 설렘도 알고 보면
눈감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눈들이
온 몸을 태워 그리운 이 잠 속으로 송신하는
수십 억 광년의 몸부림.
가슴에 별 하나 새겨보지 않고는
그 아픔의 껍질 벗기지 못하지.

거미

무거운 몸을 하늘에 띄우기 위해
거미는 여덟 개 다리에
힘을 골고루 나눠 싣고 걷는다.
모든 길은
세상의 중심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엮듯
빙빙 돌며 평생을 하늘 길 위에
한 올 한 올 그물을 엮는다.

입으로 말하지 않는 언어
느슨한 줄의 간극이 삶의 이력서,
군데군데 고쳐 쓴 언어들
간혹 전장의 깃발처럼 펄럭인다.
흔들리며 쓴 이력서 한 장
빈 하늘에 걸려 있다.

空

가진 것 다 버리고
꽁꽁 묶인 끈을 풀어
마지막 남은
오욕마저 떼어내면
비로소 보이는 하늘.

분재 1

온 몸으로 상처를 다스려
바늘처럼 단단해진 나무
창문 밖 세상 소식 기웃거리다
차갑게 잘려나가는 궁금증
병신이 육갑을 해야
비로소 눈요기가 되는 세상
두툼하게 껴입은 나이트
태엽처럼 촘촘히 감고
스스로 몸을 낮춰
얹은뱅이로 사는 나무

분재 2

고즈넉이 바라보던
해넘이 먼 산 그림자를 끌어
시린 발목을 덮고
가부좌 틀고 앉은
홀아비로 불리긴 싫다
푸르게 흔들리는 뼈와 살.
산그늘 속으로 걸어 들어간
마음 길이 지워져
21세기 빌딩 숲에서
황사바람에 눈이 침침하다고
오늘은
다 잘린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 편지를 쓴다.

봄 1

봄별이 졸고 있는 창가에
느긋하게 턱을 괴고 앉아
저 홀로 바쁜 몸뚱이는 내버려두고
마음 만으로라도 혼곤하게
춘곤증에 빠져보고프다
저 엠병하고도 남을 사쿠라
요삼 봄비에 다 지고나면
우리 식구들 얼굴을 어떻게 봐
제발 석 달 열흘만
그대로 멈춰 꽃 지지 말지.

봄 2

기나긴 겨울 뒤
봄을 맞는다
꽃샘추위가 한눈파는 사이
꿈지락 꿈지락 들썩거리며
발가락 사이를 밀치고 기어 나온다
소리도 내지 않고
슬-적 고개를 내민다
갓난아이 웅알이 같은 햇살은
비어있던 마음을 꺼내
묵혀둔 사연을 빼곡히 적고 있다
슬그머니 눈 뜬 사쿠라 꽃이파리
시샘하듯 꽃비로 내려
봄 햇살이 써놓은 연서를 읽는다
겨우내 버리지 못한 사연들이
질퍽하게 사방으로 번져
잠에서 덜 깬 봄앓이 생채기가
가지마다 반짝 불을 켜다.

詩

너는 숨 쉬는 공간 어디서든 살아있다
깨어나서 잠든 순간까지도
세상의 후미진 곳에서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빌딩숲에도
엎드려있거나 일어나 밖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살아있는 시간에 파고드는 것이다
너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오감을 건드리며
언어의 집을 짓고 있다
마음 속 깊은 곳에 절하나 짓는 것이다

너는 어디에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출근 길 차창 너머로 스쳐가는 눈길에도
 시내버스 창에 기댄 채 즐고 있는
새벽 학생의 반쯤 감긴 졸린 눈에서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첫 울음으로 세상을 여는
갓난아이 맑은 눈에서부터
속을 다 내주고 빈 껍데기로 마지막 숨을 쉬는
주름진 눈가를 적시는 마지막 눈물에까지
너는 불쑥 튀어나와 손을 내미는 것이다.

죽비소리

한 입에 꿀꺽
달아오른 해를 집어 삼키고
하늘 가득 불을 지른
노을 구름,
자꾸 헛배가 불러
헛구역질로 토해낸
초승달.

자, 노를 저어요.
저물지 않는 나라로 가요
가슴에 들어와
촛촛히 박히는 소리,
저무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내가 저무는 것.

섬

얼마동안 아무데도 연결되지 않은
외딴 섬에 홀로 갇혀 지내고 싶다
무적의 긴 울음이 안개를 불러
그럭저럭 적적함을 달래는 섬,
그곳의 아침은 어떤 모습으로 열리고
어떤 빛깔의 바람이 불어오는지
한 번도 이름 불린 적 없는 산새들과
스스로 알을 깨고나온 물새들이
어찌하여 제 이름을 부르며 안개에 묻히는지
오래 떠돌다 돌아온 파도가
홀로 여윈 바위를 만나 뜨겁게 껴안고
한바탕 신명나게 엉킨 밤을 풀어내거나 하는지
시름없이 한동안 지켜보고 싶다
사람 냄새가 그리워 눈물이 날 때까지
섬 하나 내 안에 담아 키우고 싶다.

벽

날마다 벽을 만난다
넘어야 할 벽을 두고
마음 다쳐 등을 보이는 걸음이 무겁다
넘지 못할 벽에 기대어 서있는 것
멀어지려는 수만 갈래 마음 줄을
지나온 시간의 올가미로
단단히 묶어 두는 것
느슨해지려는 시간을 팽팽히 당겨
날아오르려는 날개를 엮어매는 것
세월의 바윗돌로 가슴을 눌러
바람에 날리지 않게 여미어 놓는 일

콩나물국을 먹으며
96 96 96 96
등을 대고 곤지발로 서있는
저것들의 춤사위가
벽에 부딪혀 돌아서려는
내 서툰 몸짓임을 알겠다.

고향집

하루 종일, 아니 여러 계절을 불치의 관절 앓으며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구나. 실오라기 빛줄기로 목을 축이고 거미줄로 엮어 삼은 홀적삼 입고 너는 내게로 이어진 세월을 당기며 밤새 창을 열어 두었구나. 안개 뿜어내던 푸른 숲 모퉁이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발자국들이 서성거리며 그대로 남아 있었구나.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내 기억들을 연주하던 고향집 울타리 나팔꽃들이 음표처럼 피어있을지도 몰라. 가난을 태워 올리던 굴뚝에서는 청솔 연기 털며 굴뚝새 포르릉 포르릉 날아오르고 투명한 개울 돌 틈, 소금쟁이 그림자에 놀라 갯버들 그늘로 뒷걸음치던 순하디 순한 가재는 여전히 각질의 견고한 앞다리 찌익벌리며 악수를 청해올까. 해질녘이면 트랜지스터라디오를 짹짹 울리던 정의의 주먹 태권 동자 마루치와 아라치, 수 억만 리를 날아와 동네 꼬맹이들을 근두운에 태우고 꿈길로 실어 나르던 손오공은 지금 어디서 깊은 잠에 취해있는지. 꿀망태 부려놓고 울타리 너머 길 밖으로 도망치던 날이었던가. 가슴을 내어주며 언제건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라던 양철 대문, 대낮부터 별경게 취해 풀숲을 베고 누워있구나.

저물도록 쫓그리고 앉아 어머니를 기다리며 뒷마루 섬돌에 새기던 푸르디푸른 꿈들 아직 늙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아침 달

맑은 아침 하늘을
모처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쪽 하늘에 하얀 달이 떠있습니다.
막차를 놓치고 밤길을 걸어
지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어쩌면 밤새도록
이웃집 총각별과 사랑을 나누다
새벽 종 소리에 바빠 도망치다 흘리고 간
속저고리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다 하지 못한 가슴에 품은 말이
머뭇거리다 속엿 말이 되어
빈 하늘에 걸려있는지 모릅니다.
떠날 줄 모르고 떠있는 아침 달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힙니다.

장마

마음 부릴 곳 없는 유월,
살아 온 날들이 눅눅하고 질퍽하여
장마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덧발라 놓은 하루의 파편들이 떨어져 나와
갈피 잃은 바람으로 뿔린 마음을 휘감는다
한동안 갇혀 지내야 할
행귀내지 못한 그리운 것들이
말초신경을 풀고 빠져 나와
속앓이로 지친 하루 곁에
따리를 틀고 주저앉는다
바라볼 염치도 없는 하늘이
오늘은 잿빛이라 그래도 다행이다
먹구름으로 떠있는 마음이
주룩주룩 한 사나흘 흘러내려
어디든 스며들어 오래 머물고 싶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
오늘은 괜히 아프다.

장작 불

더 어두워지려 한다
프로메테우스 형벌로 빔어
마음속에 지핀 불빛
먼 곳에서도 환히 보일 수 있도록
죽는 날까지 어둠 속에 있으려 한다
몸 속 뜨거운 것들
하나 둘 소진하던 젊은 날
덜 익은 꿈을 익히려
별정계 달아오르던 그날의 가슴으로
어둠을 방패삼아 견디려 한다
가물가물 냉기만 감돌아 태울 수 없는
내 안의 형벌이여

희나리 같은 하루가
무심히 또 지나고 있는데....

꽃에게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너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향기 잃은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마지막 안간힘으로 몸단장을 서둘렀지

내가 네게 웃어 주었을 때
너는 핏기 잃은 몸뚱이로
작은 공간을 가득 채우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이고 있었지
보랏빛 사랑으로 단 한번만이라도
피어나게 해 달라고.

오후

비 그친 뒤
시멘트 바닥을 뚫고 나온
강아지풀 위로
농익은 햇살 한 무더기
오롯이 내려앉는다

가을 햇살에 묻어온
반가운 소식들이
느릿느릿 초점을 맞추는 오후
오래 비어있던 공터가
비로소 환해진다

팽창의 힘

가령 내 앞에 풀리지 않은 것들이
집채만 한 바위, 혹은 그을음으로 짝 찬 굴뚝같이
협심증에 걸린 혈관처럼 놓여있다 하자
제 스스로는 도무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그놈을 무슨 수로 날려버린담.
다이너마이트, 니트로글리세린의 힘,
목숨을 조여 오는 고약하고 악랄한 그놈을 달래
잠잠해지게 하거나 뺨 뚫어 소통하게 하려면
적당한 양의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묻어두면 된다.
내 생각들을 짓누르는 저 엄청난 힘의 방해꾼을 날려버리려면
다이너마이트 몇 개비 녀석의 사타구니 밑에
갱엇처럼 착 붙여놓으면 되겠다.

제발, 내 생각의 뇌관을 건드려
폭파시켜다오.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을 가로막고 있는
저-것-들 모두 한방에 팡.

안철수 디지털 시집
오래 기억되는 이름을 위하여
papasmf2@naver.com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바람과
새 아침을 기다리는
벅찬 가슴이
서로 어울려 빛이 되는 날
잠자는 말의 씨앗들이
세상의 빛으로 깨어나리라.

안철수 디지털 시집

오래 기억되는 이름을 위하여

내일도 모레도 그리움의 꽃이
소리 없이 피었다 진다해도
살아 있는 동안
이름만으로 서로를 기억할 수 있다면
꿈속에선들 토끼를 만날 수 있는
반가운 소식 하나 들고 오지 않으리라

- '오래 기억되는 이름을 위하여' 중에서

